

ISSN 2765-7477

2020年 7月 10日 創刊發行

# 文化領土研究

JOURNAL OF CULTURE-TERRITORY STUDIES

2020년 7월 10일 創刊

第5卷 2號

(通卷 第9號)

2024年 12月 31日 發行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題字：友山 宋河璟

## 文化領土研究院

2024년 12월 30일 인쇄

2024년 12월 31일 발행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우)028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4길 47

전화 : (02) 741-1690

FAX : (02) 741-1691

E-mail : 2019rict@naver.com

<http://www.rict.or.kr>

진행/홍현목·편집/조미술

인쇄 제작/대양문화사

文化領土研究院는 비매품입니다.

# 차례



## 고(故) 가석 홍일식 박사 서거 1주기 특집호

### 기획 논문

홍일식의 효(孝) 담론과 ‘우리-공동체’의 보편적 실천 윤리/05

박치완(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한류의 발전 단계 구분에 관한 연구/45

김정우(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특별 기고

K-pop의 재영토화/75

- 한류의 범세계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문화와 영토’에 대한 탐구

엄혜경(리버풀대학교 교수)

### 일반 논문

문화콘텐츠에 재현된 대치동의 의미 체계/89

- 〈일타 스캔들〉, 〈졸업〉, 〈대치동 스캔들〉을 중심으로

박미희(단국대학교 강사)

(재)문화영토연구원 소식/129

(재)문화영토연구원 회칙/134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143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149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157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159

제5권 2호 논문 심사 경위/165

임원 명단/166



기획 논문

# 홍일식의 효(孝) 담론과 ‘우리-공동체’의 보편적 실천 윤리<sup>1)</sup>

박치완<sup>2)</sup>

## [국문초록]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효(孝, filial piety) 담론은 철학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할애되기보다 효의 실천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효의 실천 문제, 즉 효행(孝行, filial piety's practice)의 문제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 효는 단지 부모-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로 그 응용 범위가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효가 본래 가졌던 전통적 가치(대표적으로, 공동체적 가치, 경천사상 등)는 구시대적·고답적 이데올로기 정도로 치부되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평생 ‘한국의 효(Korean filial piety)’를 연구하며, 효를 통해 21세기를 인본·민본주의적 정신 혁명의 시대로 변혁시키고자 했던 홍일식의 효 담론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홍일식의 효 담론에는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장들이 등장한다: i) 효의 종주국은 공맹(孔孟)의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1) 이 논문은 (재)문화영도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24.10.12.)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2)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ii) 효의 진정한 의미는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봉사·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식이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호혜성에 그 본질이 있다. iii) '한국의 효'는 용기(用器) 문화나 규범(規範) 문화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관념(觀念) 문화로써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인류 공동문화를 창조"를 지향해 왔다. iv) 이와 같은 효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지구촌 시민들이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될 때' 지구촌은 더 이상 갈등과 반목, 전쟁 등의 고통에서 신음하지 않고 타자의 배려, 존중, 평화가 깃든 새로운 '문화영토(Cultural Territory)'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홍일식의 효 담론에는 이렇듯 지구촌, 즉 '우리(인류)-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효 담론은 'Korea'라는 로컬 지리적 경계를 벗어나 세계적(보편적) 실천 윤리로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주제어 : 효, 효행, 보편적 실천 윤리, 우리-공동체, 문화영토, 홍일식

“효 사상은 (….)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우리의 독특한 사상이다. (….) 그러니까 중국의 규범문화가 한국의 관념 문화에 흡수되어 우리의 고유한 사상이 된 것이다.” - 홍일식, 「국가 위기 국면과 도덕성 회복」, 『문화대국』, 311쪽.

“21세기 인류문화를 주도할 사상 (…), 저는 단연코 우리의 의식과 문화 속에 응집되어 있는 효 사상이라고 (….) 생각합니다.” - 홍일식, 「우리의 효 문화, 세계화 가능한가?」, 『문화대국』, 324쪽.

## 1. 효(孝) 사상에 뿌리를 둔 홍일식의 문화-영토론

홍일식의 문화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문화영토론’의 핵심은 효(孝)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홍일식은 그의 주요 저서들에서 상당한 분량의 글을 효 담론에 할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文化領土時代』(1987), 『한국인』(1996), 『문화대국』(2017) 등에서 지속해서 한국 고유의 효 사상과 문화가 갖는 원형성과 도덕·윤리적 가치로서의 지역-세계성(glocality)을 강조하고 있으며, 「21세기의 문화상품」에서는 효를 더 고의적(固意的)으로 “새로운 고급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원자재”,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다.<sup>3)</sup>

물론 이렇게 홍일식이 자신의 효 담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한국의 효 사상과 문화가 단순히 한국, 한국인으로 그 적용의 범위나 경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새롭게 발견하고 주창한 효의 대의

3) 홍일식, 「21세기의 문화상품」,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21세기 인류문명의 주역이 되기 위한 한국인의 자기 점검』, 정신세계사, 1996, 176쪽 - 아래서는 『한국인』으로 약칭함. 본 연구에서는 다음 2권의 책, 『文化領土時代の 民族文化』(육문사, 1987),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범우사, 2017)도 각각 『文化領土時代』, 『문화대국』으로 약칭함.

(大意)는 지구촌의 미래와 21세기의 문명을 신인본주의로 이끌 수 있는 세계적·보편적 사상이라는 데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효 문화, 세계화가 가능한가?」, 「효의 세계화」 등에서 보듯, 홍일식은 심지어 ‘한국문화의 세계화 가능성’ 역시 효에 그 천원(泉源)이 있음을 점을 역설한다.

이렇듯 홍일식에게 있어 효는 내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오늘날까지 지탱해 준 정신적 지주(支柱)이자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 면면히 흐르는 문화원형이지만, 외적으로는 효의 인본·민본주의적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려 위기에 처한 국제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적 사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효는 홍일식에 따르면 인류를 신자유주의적 물질-상품-자본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인본주의”이다.<sup>4)</sup>

본 연구의 목표는 이상에서 축약적으로 소개한 홍일식의 효 담론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보다 표표(表表)하게 밝히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효 담론 속에는 국내의 여느 관련 연구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독별(獨別)한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효를 ‘한국의 고유 사상(Korea's original thought)’으로 해석·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효 연구를 대부분 공맹(孔孟)으로부터 유래하는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주장이다. 효가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는 홍일식의 주장은 그동안 유교적 논의틀 내에서, 즉 공맹 사상의 영향권 하에서 효를 이해하는 데 그쳐온 기존의 연구들과 분명히 구분된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특징의 연장선에서 효 사상과 문화를 대한민국, 중국 등 유교문화권에서의 윤리나 도덕으로 한정되지 않고

---

4) 홍일식, 「민족교육의 좌표와 전통문화」, 『문화대국』, 297쪽.

“서양 문화까지를 구제할 인류의 일대 르네상스”로<sup>5)</sup>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일식에게 비친 효는 “금후의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등불이요, 활로”이다.<sup>6)</sup> 홍일식의 효 담론은 이런 측면에서 단지 국내적 관점, 즉 국내의 학계만을 위해 새로운 주장에 그치지 않고 21세기의 대표적인 ‘보편적 철학(윤리)’으로 자리매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는, 이는 본 연구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홍일식에게 효는 그가 40여 년간 줄곧 탐구해 온 ‘문화영토론’의 씨줄이자 날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홍일식의 관점에서 문화의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은 곧 효를 온 인류가 윤리 및 도덕적 행동 규범으로 실천공행하여 인본·민본주의를 지구촌에 뿌리내리고 “우아한 예절 문화”로 승화시켜<sup>7)</sup>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인류 공동문화를 창조”해 가자는 제안이기도 하다.<sup>8)</sup> 만일 이렇게 홍일식이 구상·제안한 ‘효 문화의 영토(territory of filial piety culture)’가 지구촌 전체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놓는 신사고로 널리 수용·실천된다면<sup>9)</sup>,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경계들로 인해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지구촌 시민들은 인류애(人類愛), 세계애(世界愛, our world love)로 하나 되는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인류애, 세계애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곧 홍

5) 홍일식, 「현대인과 효(孝) 사상」, 『文化領土時代』, 98쪽.

6) 홍일식, 「孝는 百行之源」, 『文化領土時代』, 102쪽.

7) 홍일식, 「한국의 전통 예절」, 『文化領土時代』, 109쪽.

8) 홍일식, 「문화영토(文化領土)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문화대국』, 89쪽.

9) 본 연구에서는 효(孝)를 기존에 연구된 글들을 존중해 부득이 <filial piety>로 영역(英譯)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하지만 <filial piety>는 ‘효’보다는 ‘효행(孝行)’에 더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 생각이다. 홍일식의 효 담론은 그 의미가,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효행에 관한 것도 없지 않으나 주로는 효에 관한 것이다. 홍일식의 효 담론의 특징은 그 적용 범위가 ‘가족’의 울타리를 초월해 사회, 국가, 인류, 지구촌 전체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식의 효 기반의 문화영토론의 궁극 이상(理想)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약해(略解)한 홍일식의 효 담론에 나타난 특징들을 ‘우리-공동체(We-community)’ 개념과 연결해 결론을 지어볼 계획이다.<sup>10)</sup> 우리 각자는 개별 국가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지구촌 시민이다. 지구촌 시민의 과제는 지구촌인 “우리-공동체”를 공존과 평화,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지구촌 전체가 보편적 실천 윤리로 효를 친행(親行)하는 날이 온다면, 지구촌은 더 이상 종교나 정치적 이념 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 상살(相殺)을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지구촌의 모든 시민이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세계, 바로 이것이 홍일식의 문화영토론의 이정표이며, 바로 이것이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보려는 바이기도 하다.

---

10) ‘우리-공동체’에 관한 아이디어는 최근 현상학계에서 간간히 소개되고 있는 ‘우리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the ‘We’)에서 착안한 것이다: D. M. Parry, *Hegel’s Phenomenology of the «We»*, Peter Lang Inc., 1988; R. McIntyre, “We-Subjectivity”: Husserl on Community and Communal Constitution”, In: C. Fricke & D. Føllesdal (ed.), *Intersubjectivity and Objectivity in Adam Smith and Edmund Husserl*, Frankfurt: Ontos Verlag, 2012; D. Zahavi & A. Salice, “Phenomenology of the We: Stein, Walther, Gurwitsch”, In: J. Kiverstein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the Social Mind*, London: Routledge, 2016; T. Szanto & D. Moran, *Phenomenology of Sociality Discovering the ‘We’*, Routledge, 2016; J. Rivera, “We-Synthesis”, *Research in Phenomenology*, Vol. 49, No. 2, 2019. 한국문화와 직접 관련한 논의로는 다음 논문 참조: Hye Young, Kim,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he Korean “We””, *Frontiers of Philosophy in China*, Vol. 12, No. 4, 2017, pp. 612-632.

## 2. 효의 실천을 통해 21세기를 인본·민본주의적 정신의 혁명 시대로

홍일식이 진단·분석한 20세기는 빈익빈 부익부, 약육강식, 반도덕적, 반인간적, 반문화적 시장 경제의 시대이다. 하여 그는 21세기는 인류가 정신의 혁명을 통해 물질-기계문명에서 탈피해 인본·민본주의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역설한다. 인본·민본주의의 핵심은 당연 ‘인간’에 있고, 가장 확장된 의미의 공동체는 ‘지구촌’이다. “[바로] 이 지구라는 단일 공동체에서 인간(인류)은 사고하고 노동하며, 서로 사랑하고 교류하면서 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존재다.”<sup>11)</sup>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앗아간 직접적 원인을 홍일식은 열강들의 정치영토, 경제영토의 무리(無理)한 확장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한다. 무리한 정치영토, 경제영토의 확장은 지구촌의 파란 하늘 아래서 수탈, 착취, 지배라는 먹구름을 드리운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되)찾자”며 홍일식이 한국문화의 원형적 가치라 할 효 사상과 문화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12)</sup>

“지나온 20세기가 물질 혁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신 혁명의 시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sup>13)</sup>

“새로운 21세기는 기계문명으로 잃어버린 인간의 얼굴을 찾는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sup>14)</sup>

11) 박치완, 「영토 개념의 재고와 홍일식의 문화영토 개념의 함의」, 『문화영토연구』, 제4권 2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3, 62쪽.

12) 홍일식, 「우리의 효 문화, 세계화가 가능한가?」, 『문화대국』, 319-320쪽 참조.

13) 위의 책, 318쪽.

14) 홍일식, 「효(孝)의 세계화」, 『문화대국』, 335쪽.

물질문명의 시대인 20세기뿐만 아니라 기계문명의 시대인 21세기에도 홍일식에 따르면 ‘인간’에게서 인간의 ‘얼굴’을 앗아간 비인도적 시대다. ‘인간’ 위에 물질과 기술이 군림하면, 다시 말해 물질과 기술이 절대가치가 되면, 인류 도덕은 타락하고 정신문화가 피폐화되는 것은 123이다. 문제는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sup>15)</sup> 그 때문에 홍일식은 ‘인간의 얼굴’을 되찾아야만 한다고 역설(力說)하며<sup>16)</sup>, “인간 회복, 인간 부활을 가능케 할 [새로운] 가치 질서”를 찾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sup>17)</sup> 그가 우리의 전통문화, 민족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인 배경이 여기에 있고, 특히 그는 서양의 물신주의, 기술 제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의 효 사상과 문화에서 찾는다. 인본·민본주의적 효의 실천을 통해 21세기를 위한 정신 혁명을 꾀할 때라는 것이다.

효를 기치로 하는 정신 혁명은 홍일식에게 더 이상 “시대착오적 복고주의”나 “과거의 문화 속으로의 퇴각”을 의미하지 않고 물신주의적이고 비인도적인 “서구 문명이 봉착한 난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sup>18)</sup> “인류 구원의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과 맞닿는다.<sup>19)</sup> ‘인류 구원’이 목표이기에 홍일식에게 있어서 21세기에 효를 실천궁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효행(孝行)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그가 효행을 “효의 참된 가치와 의미”의 기준에서 보면 “지극히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sup>20)</sup>고 말한

15) 홍일식, 「효 사상의 실천으로」, 『문화대국』, 265쪽.

16) 홍일식, 「잃어버린 인간의 얼굴을 찾아서」, 『문화대국』, 284-286쪽 참조.

17) 홍일식, 「우리문화의 좌표와 전통문화」, 『문화대국』, 138쪽.

18) 위의 책, 138-139쪽.

19) 홍일식, 「맛있는 음식 앞에서」, 『문화대국』, 262쪽.

20) 홍일식, 「잃어버린 인간의 얼굴을 찾아서」, 『문화대국』, 284쪽.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에 따르면 “효의 본질”은 “실로 경(敬)에 있고” 항상 “예(禮)가 수반”된다.<sup>21)</sup> 이런 까닭에 홍일식의 효 담론은 “인간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 우선 가치를 두며, 그의 설명대로 인간의 본래 마음이 회복되어야 “인간관계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sup>22)</sup> 물질-기계문명으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의 얼굴’을 되찾아야, 즉 인본·민본주의가 제 자리를 잡아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절로 생길 수 있다. 이런 전제를 선행적으로 이해해야만 인간관계의 “첫 단계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런데 위 인용문(「효(孝)의 세계화」)에서 볼 수 있듯, 물질문명이 중심이 된 20세기는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얻었으나” 인간이 인간의 본래 마음(敬, 禮)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게 했고, 그 결과 물질적·세속적 가치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람의 마음을 잃었다”<sup>23)</sup>는 것이 홍일식의 진단이다. ‘사람의 마음’을 잃음으로써 결국 현대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미한 사회”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계열강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직 경제영토, 정치영토의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영토, 정치영토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인간’은 철저히 소외되며 배제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족은 해체·붕괴되고, 사회는 갈등과 대결, 불화와 전쟁의 화탕지옥(火湯地獄)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홍일식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롯해 모든 인간관계가 경(敬)과 예(禮)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고, 이를 현대적으로 풀이해 그는 ‘사랑으로서의 효’라고 칭한다.

21) 위의 책, 284쪽.

22) 위의 책, 285쪽.

23) 홍일식, 「맛있는 음식 앞에서」, 『문화대국』, 263쪽.

“효의 세계화는 지구촌을 위기에서 구하는 마지막 히든카드가 될 것이다. 효는 사랑이다. 효는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눈부신 사랑의 실천이다.”<sup>24)</sup>

한국의 효 사상과 문화에서 홍일식은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다. “사랑의 실천”으로 효 사상과 문화가 지구촌에 널리 전파된다면, 인본·민본주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백행지원(百行之源)인 효의 실천이 가족, 사회 단위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촌, 즉 인류의 차원으로 확대될 때 비로소 지구촌은 갈등과 대결, 불화와 전쟁의 화탕지옥에서 벗어나 “이타주의”, “평화 공존 주의”가 꽃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홍일식이 확신<sup>25)</sup> 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홍일식에게 효 사상과 문화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내외적으로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원기(元氣)이지만, 가장 넓게는 “인류와 세계를 구하는 인문주의 운동”이라는 점에 그 구극(究極)이 있다.<sup>26)</sup> 홍일식이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가장 핵으로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효 사상”, “고귀한 유산”인 효 문화를 ‘Korea’라는 지리적 경계 내에 제한시키지 않고 “전 인류 구원의 새 빛”으로 제시한 점<sup>27)</sup> 바로 국내의 기존 효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4) 홍일식, 「효(孝)의 세계화」, 『문화대국』, 337쪽. 이 글에서 홍일식은 단순히 ‘효의 세계화’를 ‘주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멀지 않아 정신문화로서 우리의 효 문화도 세계화되어 갈 것이라 나는 믿는다.”(같은 페이지.)

25) 홍일식, 「민족교육의 좌표와 전통문화」, 『문화대국』, 298쪽. 홍일식의 효 담론에서처럼 효를 하나의 ‘인류(세계)평화의 문화’로 해석한 연구로는 김익수, 『東方의 孝文化와 人類平和』, 수덕문화사, 2008; 김익수, 「儒敎思想의 觀點에서 보는 世界平和」, 『한국사상과 문화』, 제5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241-267쪽 참조.

26) 홍일식, 「문화영토(文化領土)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문화대국』, 92쪽.

27) 홍일식, 「맛있는 음식 앞에서」, 『문화대국』, 264쪽.

매우 ‘혁신적’ 해석이다.

“한국인의 관념 문화로서 (...) 이 효 사상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미로(迷路)에서 방황하고 있는 서양 문화까지를 구제할 전체 인류의 일대 르네상스가 바로 이어서 비롯될 것이 분명하다.”<sup>28)</sup>

홍일식의 이와 같은 대국적인(세계적인) 통견(洞見), 즉 ‘대한민국’이라는 로컬의 경계를 뛰어넘어 글로벌-지구촌을 염두하고 전개하는 효의 해석에서 우리는 그의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이 존중받는 인본주의, 민본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sup>29)</sup> 홍일식은 이런 대지(大旨)를 한국의 효에서 발견했기에 효를 더 이상 과거의 풍속 또는 인습 그대로 단순히 계승해야 한다며 억설(臆說)을 펴지 않는다. 부연컨대, 홍일식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효는 더 이상 과거처럼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강요하는 규범일 수 없다. 효는 홍일식에게 중국의 효행론에서처럼 강제하고 통제하는 규범문화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령’”을 함축한다고 이미 앞서 설명했다.<sup>30)</sup> 인(仁) 개념을 예로 들어 “두 사

28) 홍일식, 「현대인과孝 사상」, 『文化領土時代』, 98쪽.

29) 물론 홍일식은 단지 선언적 이상(理想)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리주의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효는 “대단히 현명하고 실속 있는 생활의 지혜”라는 구체적인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 홍일식, 「현대인과孝 사상」, 『文化領土時代』, 96쪽.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홍일식, 「효의 실리성」, 『문화대국』, 271-273쪽 참조.

30) 여기서 우리는 왜 홍일식이 중국에서의 효의 실천을 단호히 ‘규범 문화’로 정의하고 있는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효는 조선 시대 이후 한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효경』에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효 자체보다 효치(孝治)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돌려 말해 중국에서 효는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질서의 핵심 원리”로써 “군권(君權)의 강화와 군주(君主) 중심의 지배를 지향”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승율, 「유가의 효치 철학과 ‘효’ 일원주의」, 『율곡학연구』, 제45집, (사) 율곡연구원, 2021, 391, 394쪽). 한마디로, 중앙집권제의 파생물이 효치로 드러난 것이란 뜻이다.

람이 마주 서서 공경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효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도<sup>31)</sup> 우리는 홍일식이 지향하는 효의 궁극 의미가 인본·민본주의에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인(仁)에 근간한 홍일식의 효 담론이 단지 한국적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인류적 보편성을 지향할 수 있게 된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인간 회복, 인간 부활은 결국 인간 본성인 인(仁)에서 찾을 수 밖에 없고, 그 구체적 실천은 효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 [된다].”<sup>32)</sup>

“인간 회복, 인간 부활”은 당연히 한국인만의 과제라 할 수 없다. 인본·민본주의의 회복은 물질-기계문명이 기승을 부리는 한 결코

---

물론 유교의 원리상 효는 가족·종족이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 유가(儒家)의 최고 덕목 중 하나로 회자(膾炙)되어 온 효는 실제 중국에서 가족·종족 간의 화합이나 존경·섬김의 징표로서보다 국가·천하의 질서 유지 및 지배를 위한 정치 논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논의되었다(같은 논문, 394쪽). 그 결과 효는 도덕·윤리적 함의에 무게 중심이 있기보다 정치적 함의가 더 컸으며, 결국 통치권자의 관점에서 백성 교화(教化)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된 것이다(같은 논문, 410쪽). 중국의 규범 문화로서 효는 이렇게 ‘국가의 윤리’, ‘군신(君臣)의 윤리’에 더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고, 효가 충군(忠君), 충신(忠臣), 순민(順民) 등과 자연스럽게 가족 유사어를 이루는 것도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같은 논문, 395, 417쪽). 따라서 규범 문화로서 효는 백성들(시민들)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에 무게 중심을 두고 독려·권장된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히 국가의 통치권자에 의해 ‘강요된(강제된) 복종’에 그 본질이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군주는 백성의 부모’란 표현도 이런 문맥에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급기야 중국에서는 “전쟁터에 나아가 용맹스럽지 못하면 효가 아니다(戰陳無勇, 非孝也.)”(『曾子大孝』)라는 표현까지 정당화(같은 논문, 399쪽)된다. 효의 실천이 군주가 정한 신분과 지위를 지킨다는 의미로 전락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렇게 군주의 권력과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중국에서의 효치의 원리이다(같은 논문, 400쪽). 정확히 이런 연유로 인해 5·4 신문화운동을 전후해 중국 내에서도 비효[(非孝) 또는 반효(反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 한성규, 「중국 근대시기 효 비판담론의 전개와 사상적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집, 한국유교학회, 2022, 203-231쪽 참조.

31) 홍일식, 「孝는 百行之源」, 『文化領土時代』, 100쪽.

32) 위의 책, 100-101쪽.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지구촌 차원의 당면과제이다. 홍일식이 효를 “오늘의 의미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표점(標點)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sup>33)</sup>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sup>34)</sup> 효 사상의 궁극 지향이라면, 효는 마땅히 이러한 “현실적 요청에 따라 재생산, 재창조”될 필요가 있다.<sup>35)</sup> 홍일식이 효에 이렇게 ‘재생산’, ‘재창조’라는 수식어를 부가한 것은 시대의 변화, 특히 젊은 세대(MZ Generation)의 가치관 변화를 깊이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신세대들에게 지난날 농경시대의 효행을 기대하거나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우물에 가서 승능을 찾는 것만큼이나 가당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sup>36)</sup>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와 요즘 신세대들의 다분히 평등주의적·자유주의적인 요구를 십분 배려하려면 효는 “‘효(孝)’를 고취하는 표어나 플래카드”로는 결코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 더욱 효는 “글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당장 [실천]되는 것도 아니요, 규제를 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sup>37)</sup> 돌려 말하면 효는 “그 원리를 깨쳐 [자발적으로] 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sup>38)</sup> 그리고 MZ세대가 효를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

33) 홍일식, 「현대인과 孝 사상」, 『文化領土時代』, 99쪽.

34) 홍일식, 「효의 실리성」, 『문화대국』, 273쪽.

35) 홍일식, 「현대인과 孝 사상」, 『文化領土時代』, 99쪽.

36) 홍일식, 「효가 외면당한 이유」, 『문화대국』, 288쪽.

37) 홍일식, 「孝와 東勢西漸의 時代」, 『文化領土時代』, 103-104쪽.

38) 위의 책, 105쪽.

두말할 여지가 없다.

“기성세대에서 이렇게 조용히 효를 실천해 보일 때, 우리의 전통적인 효 사상은 현대 문화 속에 새로운 생명을 지니고 재현될 것이 틀림없다. 바야흐로 지난 백 년간의 서세동점(西勢東漸) 시대의 막을 내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동세서점(東勢西漸) 시대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sup>39)</sup>

감히 ‘동세서점(東勢西漸)’이란 비유까지 사용해 가며 대한민국 국민이 21세기 문명 전환의 시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은 그만큼 홍일식이 우리의 효 사상과 문화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효심(孝心), 공경심(恭敬心)은 유일하게 한국인에게만 살아 숨 쉬는, 그래서 “오늘에 되살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즉 온 인류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전통”이라 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보편적-지구적 사상이다.<sup>40)</sup>

그런데 주지하듯 국내의 효 관련 연구의 10중 9는 홍일식이 이 상에서 새롭게 이해한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효를 공맹으로부터 시작해 공맹으로 끝맺고 있다.<sup>41)</sup>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홍일식의 로

---

39) 위의 책, 105쪽.

40) 홍일식, 「전통문화와 효 사상」, 『문화대국』, 274쪽.

41) 이러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보인 태도를 홍일식은 ‘자국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이라고 비판하며, 국학(國學)을 천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뿌리가 같다고 본다. 홍일식은 이동식의 『한국인과 노이로제』(삼일당, 1983)를 인용해 “심한 문화적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한국 지식인의 95%가 정신질환자”와 흡사하다고 기술하기도 한다. 그런즉 이제라도 문화적 주체 의식을 갖고 “우리들이 우리의 것, 우리 문화”를 탐구하고 창조하는 처절하고 투철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 아니겠는가 - 홍일식, 「국가 위기 국면과 도덕성 회복」, 『문화대국』, 299-301쪽.

컬과 글로벌을 아우르고 포용하는 효 해석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오직 홍일식의 효 담론에서만 볼 수 있는 각별한 주장이다.

“지금 많은 서양인들과 [심지어는] 일본인들도 우리들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바로 이 마음[孝心, 恭敬心]에서 미래 세계의 활로를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부러워하는 이 마음의 뿌리가 우리 한국인 가슴 속에만 살아 있는 것이다.”<sup>42)</sup>

한국인의 “가슴 속에만 살아 있는”, 즉 한국인의 의식과 무의식에서 면면히 흐르는 효심, 공경심, 예의범절은 홍일식에 따르면 곧 “민족 심성”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sup>43)</sup> 효는 한국인이면 남녀노소, 신분·계급의 상하 구분 없이 삶 속에서 터득해 실천하고 있는 예의범절이며, 일상화된 윤리·도덕이다. 그런 점에서 효는 정확히 “하나의 ‘문화’”다. 홍일식이 효를 “우아한 예절 문화”의 한끝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sup>44)</sup> 효는 한국인에게 “생활 양식”이자<sup>45)</sup>, 한국의 민족-전통문화를 지탱해 주는 문화 코드인 셈이다.<sup>46)</sup>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 효를 대하는 태도 면에서 세대 간의 공

---

42) 홍일식, 「한국의 전통 예절」, 『文化領土時代』, 110쪽.

43) 위의 책, 109쪽.

44) 위의 책, 109쪽.

45) 홍일식, 「禮와 規範」, 『文化領土時代』, 111쪽.

46) 문화 코드(culture code)란 정의상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의미”를 말한다. 효는 이 점에서 한국인의 ‘문화 코드’라 할 수 있다 - C. Rapaille, *The Culture Code: An Ingenious Way to Understand Why People Around the World Live and Buy as They Do*, Crown Currency, 2006 참조.

감도(孝感) 차이는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자기의 부모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않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이 큰 탓이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족 고유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은 예절 문화로서의 효를 서구화, 근(현)대화의 이념을 빌미로 ‘골동품’ 취급하는 것은 곧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홍일식은 비판의 날을 세운다.

‘21세기’와 ‘한국 전통문화’는 과거와 현재의 개념이 부딪히듯, 남한과 북한의 대립 관계가 보여주듯, 또한 지역화(Koreanizer)와 세계화(globalizer) 개념의 길항 관계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듯,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개념은 물론 아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에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홍일식은 한평생의 과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7)</sup> 홍일식이 우리의 전통문화(Korean traditional culture) 속에 21세기의 인류가 나아갈 길이 있다는 심지(心志)를 널리 공표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필생을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연구에 바쳤기에 얻은 이론적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첨단의 신사고(新思考)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오히려 전통문화 쪽으로 눈을 돌려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sup>48)</sup>

“이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앞으로 긍정적인 역

---

47) 홍일식, 「머리말」, 『한국인』, 5-8쪽 참조. <21세기와 한국전통문화>는 홍일식이 총장 재임 시절에 유일하게 했던 강의 제목이기도 하며, 본문에서 언급한 남한과 북한의 관계, 한국화와 세계화의 관계를 다루면서 인류문명의 중심에 한국인이 어떻게 당당히, 무엇으로 설 수 있는가를 다루었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48) 위의 책, 7쪽.

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역사, 내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애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sup>49)</sup>

그의 고백 그대로 “침단의 신사고 쪽으로 눈을 돌렸다면”, 그도 아마 효에 대해 서구적 자유와 평등 개념으로 맞대응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문화 쪽에 그의 심신(心身)을 두었기에, 홍일식은 “내 역사, 내 문화”에서 “긍정적 역사” 창조의 동력을 채탐(採探)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과거의 것’이라고 하면 모두 눈을 흘기고 바라보는 다분히 ‘서구화된’ 우리의 태도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식민화된 지식계는 그렇게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오직 서구화, 근대화, 세계화를 무비판적·몰주체적으로 좇아 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 앞에는 어떤 현상이 펼쳐졌는가?

“본래의 우리 것을 모두 잃고 말았다. 잃었던 본래의 것을 되찾아 오늘의 우리 생활에 맞도록 새롭게 창조해 내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책무다.”<sup>50)</sup>

홍일식이 위 인용문에서 우리의 주의를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체 뭐겠는가? 그것은 단적으로 자기의 부모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자유와 평등과 같은 서구적 이념에 빚달 수 있는 사상이냐는 것 아니겠는가? 자유와 평등이 개인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를 논하

---

49) 홍일식, 「예송(禮訟)에 대하여」, 『한국인』, 97쪽.

50) 홍일식, 「禮와 規範」, 『文化領土時代』, 111쪽.

는 이념이라면 희생과 봉사는 가족을 모태로 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윤리적 도리를 가리킨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는 서양의 사상에 서는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효의 이념이 한국인에게는 “민족의 심성”(「한국의 전통 예절」)으로, “민족의 정서”(「禮와 規範」)로 숨 쉬고 있다는 점이다.<sup>51)</sup>

홍일식이 효를 물질적 ‘용기 문화’나 제도적 ‘규범문화’와 구분해 “고도의 형이상학적 관념 문화”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sup>52)</sup>

“관념 문화는 좀처럼 동화되기 어렵고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는 가히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문화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들이 보존하고 발양(發揚)해야 할 전통 문화는 바로 이 관념 문화이다. (...) 우리의 관념 문화를 지키고 키우는 것은, 작게는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 길인 동시에 크게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대 사상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sup>53)</sup>

효는 관념 문화이기 때문에 용기 문화나 규범문화처럼 타문화, 타국가의 그것과 단순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것이다. 관념 문화로서의 효는 서양 사상과 비교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사상”이라고 홍일식은

51) 위의 책, 112쪽.

52) 홍일식, 「世宗의 문화 정책」, 『文化領土時代』, 213쪽. 여러 글에서 홍일식은 문화를 i) 용기 문화, ii) 규범 문화, iii) 관념(정신) 문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효는 늘 iii)과 함께 설명되고 있다.

53) 위의 책, 213쪽 - 인터뷰 기사인 관계로 구어체로 돼 있는 어미를 문어체로 바꾸었음.

부연한다.<sup>54)</sup>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 문화, 내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라 신신당부하며, “우리의 의식에서 멀어지지 전에 효를 오늘에 적합한” “사상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한다.<sup>55)</sup> “진정 금후의 인류를 구원할 사상이 한국에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이를 우리 스스로 앞장서 외면하느냐는 것이다.<sup>56)</sup>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홍일식의 효 해석에서 ‘인류 구원’의 사상적 배아를 발견했다는 점만은 최소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54) 홍일식, 「孝는 百行之源」, 『文化領土時代』, 102쪽. 홍일식은 「유교에 관심 없는 ‘공자 후손’」에서도, “중일(中日) 두 나라는 다 같이 유교를 문명의 적으로 매도하여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애석해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부정한 유교 정신(특히 효 사상)을 “새롭게 창조해 낼 주역은 마땅히 우리 한민족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산둥성의 태산(太山)에 올라 다짐한다(『문화대국』, 215쪽). 이 글은 홍일식이 20여 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중한대사전』을 출간한 이후 자신의 ‘문화영토론’의 이론적 보강을 위해 공자의 고향인 곡부(曲阜) 등 중국 현지답사를 하면서 소감을 적은 글로 『동아일보』에 5회에 걸쳐(1991.05.04.~1991.06.01.) 연재했던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그는 문명사가답게 “유교문화권”, “동양문화의 큰 줄기”(『문화대국』, 212쪽)에 해당하는 중국, 중국학 연구의 필요성, 절실함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홍일식에게 중국은 대한민국에 ‘귀중한 문화적 양식’을 제공해 준 ‘이웃’이자, ‘좋은 벗’이며, ‘식민지 해방투쟁을 함께 한 동지’이기도 하다 - 홍일식, 「공존의 길’ 지켜온 관대한 이웃」, 『문화대국』, 226쪽. 그런즉 이제는 중국을 대하는 전근대적 태도에서 탈피해 중국을 새롭게 이해하는 ‘포괄적 눈’을 가질 때라고 홍일식은 강조한다. “지대(地大), 물박(物博), 인다(人多)”의 상징이기도 한 중국은 홍일식에게 “그 자체가 천하요 세계”이다. “그러니 그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도, 어디에 머리를 숙일 이유도 없다.” - 홍일식, 「체제 지탱 큰 기둥 농민 계층」, 『문화대국』, 221쪽. 물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밀월(蜜月)’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홍일식은 “다가올 새로운 국제경제의 각축과 대결을 극복할 힘은 오직 동양의 예지[조화와 공존과 극복의 논리]”에 있다며, 자신이 ‘문화영토’ 개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긴밀한 제휴”가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 홍일식, 「공존의 길’ 지켜온 관대한 이웃」, 『문화대국』, 228쪽.

55) 홍일식, 「孝는 百行之源」, 『文化領土時代』, 102쪽.

56) 위의 책, 102쪽. 「잃어버린 인간의 얼굴을 찾아서」에서도 홍일식은 효가 한국인에게 “생경한 원자재로 잠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분석하면서 “이것을 갈고 닦고 다듬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우리가 머뭇거리”면 이마저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문화대국』, 286쪽).

### 3. 효의 지역-세계화와 ‘우리-공동체’의 건설 메시지

홍일식의 문화영토론은 “지난날의 서구인들처럼 문화 외적(外的)인 힘을 앞세운 지배의 논리, 억지 통합의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극복의 논리”를 통해 지구촌에 사랑과 평화를, 배려와 존중을 전파하려는 데 궁극 메시지가 있다.<sup>57)</sup>

사랑과 평화, 배려와 존중을 전파해 인본·민본주의를 꽃피게 하는 것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신문화론이라면, 홍일식은 이러한 “선의(善意)의 문화 경쟁”에는 서로가 앞다투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sup>58)</sup> 홍일식의 문화영토론에서의 논리대로라면, 문화 간의 경쟁은 활성화될수록 인본-민본주의, 인도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문화와 문화 간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며, 평화의 노래가 각 처 사방에서 구가(謳歌)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영토론의 기준에서라면 문화 간 경쟁은 언제든, 얼마든지 활발하게 진행되어도 상대 문화에 대해 배타적으로 흐를 확률이 낮다. 그렇게 지구촌 전체가 사랑과 평화, 배려와 존중의 문화영토로 진화되었을 때를 일러서 홍일식은 “천하에서 가장 넓은 땅”이라 지칭한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가치의] 영토” 건설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sup>59)</sup>

홍일식의 문화영토론은 이렇듯, ‘정치’나 ‘경제’가 아닌 ‘문화’로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길을 사상적으로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시대를 앞서간 신문화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sup>60)</sup> 이미 40여 년

57) 홍일식, 「책 머리에」, 『文化領土時代』, 2쪽.

58) 홍일식, 「領土 概念의 새로운 認識」, 『文化領土時代』, 471쪽.

59) 홍일식, 「21세기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대국』, 472쪽.

60) 홍일식이 ‘문화영토’ 개념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안한 것은 1981년 「領土 概念의 새로운 認識」(『동아일보』, 1981년 5월 13일)에서다. 그가 ‘문화영토’를 제안한 배경은 다음

전 홍일식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한류(Korean Wave)’의 옷을 입고 세계 각지에서 사랑받는 날이 올 것을 헤아린 셈이며<sup>61)</sup>, 효가 그 중심에 있다고 심신(深信)한 것이다. 홍일식은 「효 사상은 우리 민족의 신앙」에서는 효를 “우리 전통문화와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며 ‘최상급’으로까지 수식하고 있다.<sup>62)</sup>

물론 효가 공맹의 사상에 근간이 있다는 것을 홍일식이 모를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다분히 ‘국가주의적’ 의견으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을 피력하면서 홍일식이 대한민국의 신세대들과 공감하려는 것인즉 “유교 사상이 이 땅에 전래(傳來)되기 이전에도 우리 민족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의 영혼을 신으로 모시는 사상이나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sup>63)</sup>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다. 단적으로 표현해, 우리 민족에게 있어 효의 시발점, 즉 연원은 공맹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홍일식에 따르자면, 효의 뿌리는 공맹의 사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민족에게서 전승·실천되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효는 “분명히 유교와는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효

---

과 같다: ①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역사 창조와 기본 방향은 전쟁으로부터 평화로, 대결로부터 협상으로, 분쟁으로부터 타협으로의 길이어야” 한다. ②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국가적·정치적 개념으로만 국한시켜 생각해 오던 영토의 개념을 차차 민족적·문화적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③ 지구촌 시민들에게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동반될 때 “금후의 세계는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정신문화”, 즉 “학문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의 힘으로써 국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의(仁義)로써 민족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61) 이와 관련한 기(既)연구로는 김정우, 「오늘의 관점에서 본 문화영토론의 실현 방안: 한류를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창간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0, 97-118쪽; 홍성길, 「왜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가?: 문화영토 개념의 확장성 연구를 위한 소고」, 『문화영토연구』, 제3권 2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2, 5-28쪽 참조.

62) 홍일식, 「효 사상은 우리 민족의 신앙」, 『한국인』, 159쪽.

63) 홍일식, 「孝는 百行之源」, 『文化領土時代』, 101쪽.

는 “동북아시아에 분포(分布)되어 있는 시베리아 민족 고유의 사상”<sup>64)</sup>이다.

그런즉 한국인에게 효 사상과 문화는 비록 공맹의 “유교의 영향을 받아 더욱 세련되게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sup>65)</sup>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뿌리가 중국이나 공맹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나태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실존적 장소 자체를 망각한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일식이 효 사상과 문화가 발원한 시기를 이렇게 문자 이전의 시대, 즉 “원시 종교적 샤머니즘”에로까지 앞당겨 잡은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부모의 봉양이나 조상의 숭배와 같은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를 “유교적인 옷”을 걸치게 함으로써 “세련된 모습”으로 일신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두고서 한국인의 효 사상과 문화가 “유교에서 나왔다”며 일반화하고, 이를 국내의 학계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정설(定說)로 받드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sup>66)</sup>

“우리 전통의 경로 정신, 효 사상이 반드시 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 샤머니즘 속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인데 유학의 효 사상과 유사한 것이고 또 유학으로 해서 더욱 세련되기는 했다.”<sup>67)</sup>

효가 “유교에서 나왔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화사적으로도, 문화

---

64) 위의 책, 101쪽.

65) 위의 책, 101쪽.

66) 홍일식, 「효 사상은 우리 민족의 신앙」, 『한국인』, 159-160쪽. 이러한 홍일식의 입장은 앞서 살펴본 「孝는 百行之源」(『文化領土時代』, 99-102쪽)을 비롯해 「오늘의 시대를 탐구한다」에서도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대국』의 여러 글에서도 피력하고 있다.

67) 홍일식, 「오늘의 시대를 탐구한다」, 『文化領土時代』, 203쪽.

인류학적으로도 타당치 않으며,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홍일식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효 사상은 우리 민족의 신앙」에 잘 나타나 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 그러니까 중국의 효와 우리의 효를 같이 효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그 둘은 본질적인 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문화인류학의 분류 방식을 원용해서 말한다면,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규범 문화(規範文化)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 본래의 효는 관념 문화(觀念文化)이다.”<sup>68)</sup>

홍일식이 이토록 한국의 효를 중국에서의 효와 애써 구분한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이유는, 이미 앞서도 언급했듯, 효는 용기 문화나 규범 문화에서처럼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쉽게 전파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용기 문화나 규범 문화와 달리 관념(정신) 문화는 “그 문화의 주인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관념 문화로서 효는 “시대가 변화고 상황이 바뀌면 다른 문화에 동화되거나 소멸되는” 그런 성질의 용기-규범 문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sup>69)</sup> 관념(정신) 문화에는 “그것을 지어낸 민족의 정서가 가장 진하게 깃들여 있어서 쉽게 다른 민족이 받아들여 동화되기가 어렵고, 또 그 집단의 노력에 따라서는 영원히 지켜 나갈 수도 있다.” 그런즉 “같은 유교문화권인데도 오늘날에 와서는 중국인에게도 없어지고 일본인에게도 없어진 효 사상이 오직 우리 한국인에게만 살아남아서 생동하는” 까닭을 깊이 재고

68) 홍일식, 「효 사상은 우리 민족의 신앙」, 『한국인』, 160쪽.

69) 위의 책, 162쪽.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70)</sup>

“효 사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버리기 전에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우리 정신의 원형질과 같은 것이다.”<sup>71)</sup>

이렇듯 한국에서는 민족 심성과 민족 정서로 체화되어 이미 하나의 생활문화로 터 잡은 효 사상이기에 한국인에게는 오늘날에도 일상에서 면면히 흐르는 도덕, 윤리로서 효가 널리 수용·실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서의 규범 문화로서 효는, 앞서도 언급했듯, 이미 중국 대중들의 마음을 떠난 지 오래라고 중국 여행의 체험을 통해 홍일식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효는 연원의 측면에서도, 본질의 측면에서도, 실천의 측면에서도 중국에서의 효의 수용과는 큰 차이가 나기에 다분히 그동안의 연구 관행에 젖어 한국에서의 효의 가치를 중국에서의 효와 유사성의 논리로 또는 공맹 사상에의 종속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홍일식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만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의 효 논의를 비주체적 종속 논리로 설명하거나 본래 가치를 절하(切下)한다면, 효가 한국에서 영영 고유성을 잃고 말 것이라는 게 홍일식의 진단이다. 돌려 말하면, 문화적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문화의 뿌리에 다가서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심지어는 “중국에서 볼 수 없는 한

70) 위의 책, 166-167쪽.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에서는 유교 전통이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유교적 가치관과 사고를 지닌 민족이라면, 오늘의 중국인은 다분히 도교적 사고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 홍일식, 「겉 다르고 속 다른 ‘숙명의 이웃’, 『문화대국』, 208쪽.

71) 홍일식, 「효 사상은 우리 민족의 신앙, 『한국인』, 167쪽.

국민 특유의 효도, 경로사상, 조상 숭배 사상”을 귀히 여기고, 이를 “되살리는 방법을 강구(講究)해”<sup>72)</sup> “전통의 비약적 계승”을 피하려는 생각을 왜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냐고 홍일식은 한국의 지식계를 겨냥해 일침을 던진다.<sup>73)</sup>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홍일식은 또한 인효(仁孝)를 대표로 하는 동양 사상이 “서구인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한낱 비현실적인 꿈이요, 공상(空想)” 정도로 비출 확률이 높다고 적고 있다.<sup>74)</sup> 홍일식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서구인들은 동양(사상)을 “비생산적, 비능률적,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 폄훼해 왔다.<sup>75)</sup>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동양은 ‘불확실성’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그들은 심지어 “동양적 정체사관(停滯史觀)”이란 표현을 앞세워 그들의 확실성에 근거한 진보사관(進歩史觀)을 동양과 정면으로 맞세웠다.<sup>76)</sup> 이와 같은 편견에 휩싸여 있던 서구인들에게 “동양인만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마음[人不忍之心: 사람으로서 차마 못하는 마음]”이 인식되고 이해되었을 리 만무하다. 그들의 시선에 포착된 동양, 동양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효과적인 어리석은” 것으로 매도되었고, 그 결과 동양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sup>77)</sup> 이 자리에서 재차 강조하지만, 홍일식은 자신의 효 담론을 “비단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의 부활을 위해, 제2의 르네상스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sup>78)</sup>

72) 홍일식, 「孝는 百行之源」, 『文化領土時代』, 102쪽.

73) 홍일식, 「孝와 東勢西漸의 時代」, 『文化領土時代』, 104쪽.

74) 위의 책, 103쪽.

75) 홍일식, 「불확실성 시대의 동양 윤리」, 『文化領土時代』, 195쪽.

76) 위의 책, 195쪽.

77) 위의 책, 196-197.

78) 홍일식, 「불확실성 시대의 동양 윤리」, 『文化領土時代』, 197-198쪽. 효를 홍일식이 ‘인류 구원’의 담론으로 제시한 글은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문화대국』에서

그리고 그의 효 담론의 목표는 ‘인류의 부활’, ‘인류의 구원’에 있다. 그가 효를 서양에서처럼 “단순한 가정 윤리로서 이해”하고 마는 것을 경계(儆戒)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sup>79)</sup>

“서양인들에게는 이러한 문화 전통이 없기 때문에 오묘한 이 이치를 모른다. 또 하고자 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세계적 보편성 위에 다 우리적 특수성을 접목시켜 꽃피우는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의 길이다.”<sup>80)</sup>

정확히 이런 까닭에 우리는 홍일식의 효 담론을 규범화된 중국의 효 개념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최근 가정(가족) 윤리로서 오직 자기의 부모에게만 사랑-나눔을 제한하는 서양의 효행(filial piety) 개념과도 선부른 동일시를 해서는 안 된다.<sup>81)</sup> 서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효행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아와 타자를 대칭 관

---

몇 문장을 추가해 본다: “[효는] 부모와 자식을 다 같이 위하는 유일한 길ियो, 이 나라, 이 사회, 이 겨레를 구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등불이다.” - 홍일식, 「효 사상의 실천으로」, 『문화대국』, 270쪽; “[부모와 노인과 조상을 섬기는 효 사상과 같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장래뿐만 아니라 전 인류문화의 밝은 빛이 되어가고 있다.” - 홍일식, 「전통문화와 효 사상」, 『문화대국』, 279쪽; “한국인에게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이 효 사상이야말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미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서양인들까지를 구제할 전체 인류문명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 홍일식, 「현대인과 효 사상」, 『문화대국』, 283쪽; “효야말로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사상의 원천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잃어버린 ‘인간의 얼굴’, 그것을 찾는 열쇠는 바로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다.” - 홍일식, 「잃어버린 인간의 얼굴을 찾아서」, 『문화대국』, 286쪽.

79) 홍일식, 「효의 실리성」, 『문화대국』, 272쪽.

80) 위의 책, 272-273쪽.

81) 효(孝)를 영어로 <filial piety>로 번역하는 것이 국내 학계에 일반화돼 있다. 한국, 중국 등 동양 학자들이 효를 <filial piety>로 억지 번역해 사용하다 보니 서양의 학자들도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 듯하며, 효행의 경우는 <filial piety>와 <filial piety's practice>가 혼용되고 있다. 효 개념의 번역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효 담론이 한중일(韓中日) 밖에서 어떤 지형(知形)의 변화 또는 왜곡을 겪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계(symmetric relation)로 이해한다. 같은 논리로 서양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역시 대칭-평등 관계로 규명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만일 대칭-평등 관계라면 부모도 자식도 각기 상대의 관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만 한다.

이렇듯 서양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효행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호성, 평등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여긴다. 부모도 자식도 각각 차이(상대의 관점)는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상대를 위해 양보하거나 상대와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주지의 J. 하버마스의 '평등주의적 상호성(egalitarian reciprocity)' 개념도 필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82)</sup> 즉 차이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부모는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은 자식의 생각대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효행의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서양의 효행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일종의 '인간학적 도덕론'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효행 개념이 인간학적 도덕론이라면, 한국의 효 관념은, 앞서도 설명했듯, 단지 가족의 범주에만 머물지 않고 경천(敬天)사상으로까지 확대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도덕적 실천, 서구식으로 표현해 '사랑-나눔'도 단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이타애(利他愛), 인류애(人類愛), 만물애(萬物愛)로 확장·승화된다는 뜻

---

82) I. M. Young, "Asymmetrical Reciprocity: on Moral Respect, Wonder, and Enlarged Thought", *Constellations*, Vol. 3, No 3, 1997, p. 341 참조. 이런 까닭에 '보편화가능한 도덕적 규범(universalizable moral norms)'을 염두에 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학(discourse ethics)'은 대화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경험, 관점, 감정을 버리고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이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다. 특히 ‘인류에 대한 사랑(慈悲之心)’으로까지 효의 의미가 확대된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효 사상과 문화는 단지 가정사, 인간사에만 국한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윤리, 도덕 자체가 효에 기반한 “진리의 구현”에 최종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3)</sup>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의 효 사상과 문화에는, 중국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i) 한국에서 효는 수평적 현실 세계에서는 인본·민본주의의 실현을 위해 누구나가 궁행(躬行)하는 일상적 도덕·윤리이다. ii) 반면 수직적·형이상학의 세계에서는 경천사상을 구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서양인들에게 있어 ii)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 ‘불가사의한 것’으로 비칠 확률이 높다.<sup>84)</sup> 그러나 한국인에게 이는 이미 체화된 것이다. 홍일식이 효를 도구로 상징되는 용기 문화, 제도나 법률로 상징되는 규범 문화와 구분해 “가장 고차의 정신문화”라고 애써 규명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sup>85)</sup> 한국인에게 효는 그러니까 정신 문화 중에서도 가장 고차의 이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즉 ‘선한 이데올로기로서(as a good ideology)’의 효는 한국인이면 모두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하나의 정신적 이념으로 또는 살아 있는 정신으로 코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한국에서의 효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 도리를 다하는(孝行) 것에 초점을 둔 도덕적·윤리적 강령이나 자식의 희생만

83) 오석원, 「儒敎의 孝思想과 現代社會」, 『유교사상문화연구』, 제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378쪽.

84) I. M. Young, *op. cit.*, p. 357. 경이(wonder), 초월성(transcendence)을 서양에서는 ‘비인간적 불가해성(inhuman inscrutability)’으로 이해했으며, 절대 타자, 즉 신(神)에 대해 언급할 때 이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 그들이 “효가 하늘에까지 가 닿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반문해 보게 된다.

85) 홍일식, 「효 사상은 우리 민족의 신앙」, 『한국인』, 162쪽.

을 강요하는 고답적·구시대적 이데올로기 정도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홍일식이 효를 ‘주고받는 것’, 즉 호혜성(互惠性)으로 재해석한 배경도 정확히 이러한 연구 구습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의 제시라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효도란 아무런 연유 없이, 인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효는] 결국 주고받는 것이다.”<sup>86)</sup>

부연컨대 한국의 효 이념 속에는 기본적으로 “호혜와 공존의 논리가 담겨” 있으며<sup>87)</sup>, 국가에 대한 충성도 윗사람이나 스승에 대한 공경도 모두 일방적인 요청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라는 점이다. ‘쌍방향적’이라는 것은 효가 상호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석원도 효를 “맹목적 복고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런즉 이제 더는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인 효를<sup>88)</sup> 우리가 부정하고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축소·편협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위 인용문에 기대(「충성·공경·효도」) 거듭 강조하건대, 효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정서와 감성, 정신과 영혼을 ‘교류’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며 “주고받는 것”이 아

86) 홍일식, 「충성·공경·효도」, 『한국인』, 209쪽. 이어지는 문장에서 홍일식은 ‘호혜와 공존의 논리’로서 효를 서양의 합리주의적·실용주의적 사랑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효는] 서양처럼 당장 목전의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다. 서양인들은 그게 합리적이라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 고차원의 동양적 합리주의가 있는 것이다. (...)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는 효는] 시차를 두고 긴 안목에 의해서 차원 높은 이타주의로 승화되어 있기에 더욱 큰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가치들을 단지 지난 날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배격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오늘에 맞는 개념 정립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잘 살려 나가야 하겠다.”(같은 책, 214쪽)

87) 위의 책, 210쪽.

88) 오석원, 앞의 논문, 381쪽.

니기에 홍일식은 효를 호혜와 공존의 논리라 명시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양자 모두에게 효가 ‘배경 믿음 (background belief)’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홍일식에게 있어 효의 모수(母數)는 ‘인류’이며, 효의 실천 무대는 ‘지구촌 전체’이다. 이에 근거해 우리는 홍일식의 효론(孝論)을 감히 “우리 철학”이라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구촌 시민’은 단지 ‘개인’의 집단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지구촌 시민으로서 ‘개인’은 집단, 즉 지구공동체의 필수적 부분이란 의미다.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공동체 우선 관점 (community first view)”에서 개인을 새롭게 바라볼 때가 된 것이라고나 할까. “우리 우선적 경험(we first experience)”은 개인의 경험은 단지 “주관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구성물”로 본다.<sup>89)</sup>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원자(social atoms)”가 아니다. “개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공동체적 기원(a communal origin)을 갖는다.”<sup>90)</sup>

서양철학에서도 물론 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홍일식의 문화영토론에서처럼 ‘우리’를 모수로 하지 않는, 다시 말해 ‘인류’를 대전제로 하지 않은 공동체 논의라면 그것은 배타적 집단 정체성의 표현에 그칠 확률이 높다.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국제 현실에 비춰보면 물론 홍일식의 ‘효 기반의 우리-공동체론’에 대해 단지 낙관적 해석을 하는 것만으로 지구촌에서 사랑과 평화, 배려와 존중의 문화영토가 완성될 것이라 쉬 장담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말해, 그래

89) D. Zahavi, “We in Me or Me in We? Collective Intentionality and Selfhood”, *Journal of Social Ontology*, Vol. 7, No. 1, 2021, p. 5.

90) *Ibid.*, p. 6.

서 더더욱 하나의 대안적 이론으로써 홍일식의 효 담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비록 시론(試論)을 제시해 본 수준에 그쳤지만, 인류가 선의(善意)로 공의(公儀)를 모아 이를 실천하는 데 동참한다면, ‘우리-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4.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홍일식의 효 담론이 갖는 의의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 타당한 관점을 ‘보편적 관점’이라고 말한다. 이 보편적 관점은 근대 이후 진리 탐구의 바로미터, 즉 객관적 지식 생산의 표준으로 변통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홍일식의 효 담론도 서구의 도덕-윤리론이 그렇듯 특정 관점(Korean perspective)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적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본론에서도 가감 없이 논의하였듯, 한국의 효 담론은, 홍일식의 주장을 존중해서 언급하자면, 한국인에게 고유한 도덕-윤리론이다. 효는 한국인에게 매우 특별한 관념 문화로, 생활문화로 전승·실천되고 있다. 하지만 홍일식이 효 담론의 발원지가 한국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철학적 가치가 ‘한국’이라는 지리적 경계에 갇힌 것이라 잘라 말하는 것은 설부르다. 이미 본론에서 상술했던 바와 같이, 홍일식의 효 담론은 지향점이 “인류의 ‘정신적 재건’”에 있다. 물질-기계문명으로부터 초래된 ‘위험사회’에서 ‘인간의 얼굴’을 되찾아 인본·민본주의를 토착화하자는 것이 홍일식의 효 담론, 문화영토론의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홍일식의 문화영토론은 특수성과 보편성,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홍일식의 시대를 앞서 내다본 세계 인식론 및 문화 인식론을 “세계-보편성을 지향하는 지역-특수성으로서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제하로 상세히 설명했다.<sup>91)</sup> 사상, 철학은 연구자 개인이나 한 국가의 전유물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홍일식의 효 담론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서양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효행 연구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효 연구와 동일시하는 것도 다소 성급해 보인다. 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유사하다거나 일치하는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도 효 자체보다, 서양에서의 유행을 좇기라도 하듯, 효행에 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듯하다. 효보다 효행 연구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급기야는 ‘기독교적 효행’과 같은 연구도 여봐란듯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sup>92)</sup> “눈뜨고 코 베 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두 눈을 바로 떠야 할 상황에 감고 있으면 이런 일도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홍일식이 왜 한국의 효를 서양에서는 그 기원을 찾

91) 박치완, 「홍일식의 민족 문화론과 한국문화의 지역-세계성과 특수-보편성」, 『문화영토 연구』, 제5권 1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4, 72-78쪽 참조.

92) 박성관, 「성경적 효(filial piety) 체계로서 내러티브」, 『효학연구』, 제11호, 한국효학회, 2010, 25-48쪽; David M. Park, “The challenge that Confucian filial piety poses for Korean churches”, *HTS/Theological Studies*, Vol. 70, No. 2, 2014, pp. 1-8 참조. 이들 연구는 기독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고 강조한다. 부모를 거역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을까? 이런 논리라면 유대교에서도 효행을 중시했다는 논문이 나올 법해 보이지 않은가? 필자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 Fu Youde & Wang Qiangwei, “Filial Piety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onfucianism”, *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Vol. 1, 2015, pp. 280-312; Heidi M. Szpek, “Filial Piety in Jewish Epitaph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umanities: Annual Review*, Vol. 8, No. 4, 2010, pp. 183-202. 이렇듯 고유의 의미와 가치체계를 벗어나 효가 ‘자유로운 해석’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을 수 없으며, 한국의 효와 비교 불가하다고 강조한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효는 서양의 효행 논의에서처럼 단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이타애(利他愛), 인류애(人類愛), 만물애(萬物愛)로까지 확장된다고 필자가 설명한 것인지를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보편적 관점은 특정 관점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설득력을 득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할 뿐 결코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왜 특정 관점을 취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지 모든 인간, 모든 문화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 되어야만 보편적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 본 연구와 관련해 부연하면, ‘그 어디에도 뿌리를 두지 않은 관점(the view from Nowhere)’은 그 누구에게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된다. 오늘날처럼 모든 게 개방된 이 시대에 웬 ‘한국의 효’와 같은 특수적 관점을 두둔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비록 모든 경계가 사라진 시대라고 21세기를 정의한다고 해도 문화적 정체성을 갖지 않은 인간 존재를 상상하기 어렵듯, 문화적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은 사상, 철학의 탄생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사상과 철학은 늘 ‘어딘가(the view from somewhere)’에서 출현한 것이란 뜻이다. 돌려 말해 ‘효의 어디(the birthplace of filial piety)’는, 홍일식에 따르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문화와 역사를 사상이나 철학에 부수적인 것으로 폄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93)</sup> 사상, 철학은 문화, 역사와 함께 구성된다. 문화적 정체성도 과거에로의 회귀성보다 미래에로의 확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로 자신을

93) J. S. Phinney, "Identity Formation across Cultures: The Interaction of Personal, Societal, and Historical Change", *Human Development*, No. 43, Iss. 1. 2000, pp. 27-31 참조.

확장해 갈 때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나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은 더 이상 ‘우리(a We, Global Citizen)’를 묶아매는 정체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모두가 서로 다른 정체성을 포용하는 문화(embracing all of our identities)를 함께 만들어 간다면<sup>94)</sup>,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지구공동체’의 어엿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

홍일식의 효 담론이 지구촌에 가능태가 아닌 현실태로 구현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화적 정체성의 늪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홍일식의 효에 기반한 문화영토론은 더 이상 규제의 수단이나 억압의 기제가 아니라 자기 개방, 타자 해방의 이념이다. 즉 ‘우리’가 하나가 되는 철학이다. 누차 설명했듯, 그의 효 담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우리-세상’의 제시에 있다. 모든 인간(인류)은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등으로 구분하기 이전에, 영토를 경계로 국가를 구분하기 이전에, 모두 하늘과 땅의 자손들이었다. 모든 인간이 ‘한 가족’처럼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지구촌이라면 더 이상 소외나 억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각기 타고난 또는 새롭게 창조해 가는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한껏 타자, 타문화 앞에서 표현하고 또 그 차이를 발산하면서 지구공동체를 다채롭게 꽃피워 가는 것, 바로 여기에 홍일식의 신인본주의적 문화영토론의 이상(理想)이 있다.<sup>95)</sup> 그리고 본 연구에서 우리는 홍일식이 이와 같은 문화적 실천을 통해 이르고자 했던

94) B. D. Tatum, “The Complexity of Identity: “Who Am I?””, In: A. M., Blumenfeld et al.,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An anthology on racism, sexism, anti-semitism, heterosexism, classism and ableism*, New York: Routledge, 2000, p. 13.

95) 홍일식의 비판적·대안적 세계화론으로서의 ‘신인본주의’에 대한 상세한 논구는 박치완, 「세계시민주의의 창으로 재평가한 홍일식의 문화영토론」, 『동서철학연구』, 제111호, 한국동서철학회, 2024, 248-253쪽 참조.

세계를 감히 ‘우리-공동체’라 명명해 본 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우리-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우리-공동체’에 서는 모두가 ‘자신의 관점(own perspective)’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자신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은 곧 타자의 관점을 잘 살펴보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때라야 ‘더 일반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집단적 행위자로서 “‘우리’라는 감각(a sense of us)”을 마침내 지닐 수 있게 된다.<sup>96)</sup> 각자가 “우리-관점(a we-perspective)”을 유지할 때<sup>97)</sup> 차이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고, 모든 주체, 즉 “우리(a We)”가 “하나의 공동 주체(one co-subject)”로 거듭나야<sup>98)</sup> 홍일식이 강조한 대로 인류가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홍일식은 「文化領土 時代의 到來와 韓國文化의 展望」에서 차이의 꽃들이 ‘문화의 꽃밭’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 했다.<sup>99)</sup> 홍일식에게 차이는 “지금까지 각 민족이 꽃피워 온 다양한 인류문화의 실체들”이다.<sup>100)</sup> 문화적 다양성은 교류되면서 비로소 차이에 대한 이해 또한 심화(深化)될 수 있다. 차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타문화와의 공감의 대문(大門)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홍일식이 “우리 모두[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의 영토”를 ‘문화영토’라 설한 까닭을, ‘오늘, 여기에서(Today, in Korea)’ 바로 ‘우리(Korean)’가 탐구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살피겠는가!<sup>101)</sup>

96) J. R. Searle, “Collective Intentions and Actions”, In: *Intentions in Communication*, edited by P. R. Cohen et al., Cambridge, MA: MIT Press, 1990, p. 414.

97) D. Zahavi, *op. cit.*, p. 16.

98) *Ibid.*, p. 17.

99) 홍일식, 「文化領土 時代의 到來와 韓國文化의 展望」, 『文化領土時代』, 457쪽 참조.

100) 홍일식, 「문화영토(文化領土)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문화대국』, 84쪽.

101) 홍일식, 「21세기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대국』, 472쪽.

## 〈참고 문헌〉

### □ 기초 자료

- 홍일식, 『文化領土時代の 民族文化』, 육문사, 1987.  
——,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21세기 인류문명의 주역이 되기 위한 한국인의 자기 점검』, 정신세계사, 1996.  
——,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 범우사, 2017.

### □ 단행본

- 김익수, 『東方의 孝文化와 人類平和』, 수덕문화사, 2008.  
박치완 외, 『문화콘텐츠와 문화코드: 글로벌 시대를 디자인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1.  
조성환, 『하늘을 그리는 사람들』, 소나무, 2022.  
Parry, D. M., *Hegel's Phenomenology of the «We»*, Peter Lang Inc., 1988.  
Rapaille, C., *The Culture Code: An Ingenious Way to Understand Why People Around the World Live and Buy as They Do*, Crown Currency, 2006.  
Szanto, T., Moran, D., *Phenomenology of Sociality Discovering the 'We'*, Routledge, 2016.

### □ 참고 논문

- 김익수, 「儒敎思想의 관점에서 보는 世界平和」, 『한국사상과 문화』, 제5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241-267쪽.  
김정우, 「오늘의 관점에서 본 문화영토론의 실현 방안: 한류를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창간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0, 97-118쪽.  
박성관, 「성경적 효(filial piety) 체계로서 내러티브」, 『효학연구』, 제11호, 한국효학회, 2010, 25-48쪽.  
박치완, 「영토 개념의 재고와 홍일식의 문화영토 개념의 함의」, 『문화영토연구』, 제4권 2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3, 35-91쪽.  
——, 「홍일식의 민족 문화론과 한국문화의 지역-세계성과 특수-보편성」, 『문화영토연구』, 제5권 1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4, 39-94쪽.  
——, 「세계시민주의의 창으로 재평가한 홍일식의 문화영토론」, 『동서철학연구』, 제111호, 한국동서철학회, 2024, 219-261쪽.  
오석원, 「儒敎의 孝思想과 現代社會」, 『유교사상문화연구』, 제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353-381쪽.  
이승율, 「유가의 효치 철학과 '효' 일원주의」, 『울곡학연구』, 제45집, (사) 울곡연구원, 2021, 389-422쪽.  
한성규, 「중국 근대시기 효 비판담론의 전개와 사상적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집, 한국유교학회, 2022, 203-231쪽.  
홍성걸, 「왜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가?: 문화영토 개념의 확장성 연구를 위한 소고」, 『문화영토연구』, 제3권 2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2, 5-28쪽.  
Kim, H. Y.,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he Korean "We"", *Frontiers of*

- Philosophy in China*, Vol. 12, No. 4, 2017, pp. 612–632.
- McIntyre, R., ““We-Subjectivity”: Husserl on Community and Communal Constitution”, In: C. Fricke and D. Føllesdal (ed.), *Intersubjectivity and Objectivity in Adam Smith and Edmund Husserl*, Frankfurt: Ontos Verlag, 2012, pp. 61–92.
- Park, D. M., “The challenge that Confucian filial piety poses for Korean churches”, *HTS/ Theological Studies*, Vol. 70, No. 2, 2014, pp. 1–8.
- Phinney, J. S., “Identity Formation across Cultures: The Interaction of Personal, Societal, and Historical Change”, *Human Development*, Vol. 43, Iss. 1, 2000, pp. 27–31.
- Rivera, J., “We-Synthesis”, *Research in Phenomenology*, Vol. 49, No. 2, 2019, pp. 183–206.
- Searle, J. R., “Collective Intentions and Actions”, In: *Intentions in Communication*, edited by P. R. Cohen et al., Cambridge, MA: MIT Press, 1990, pp. 401–415.
- Szpek, H. M., “Filial Piety in Jewish Epitaph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umanities: Annual Review*, Vol. 8, No. 4, 2010, pp. 183–202.
- Tatum, B. D., “The Complexity of Identity: “Who Am I?””, In: A. M., Blumenfeld et al.,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An anthology on racism, sexism, anti-semitism, heterosexism, classism and ableism*, New York: Routledge, 2000, pp. 9–14.
- Youde, F. & Qiangwei, W., “Filial Piety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onfucianism”, *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Vol. 1, 2015, pp. 280–312.
- Young, I. M., “Asymmetrical Reciprocity: on Moral Respect, Wonder, and Enlarged Thought”, *Constellations*, Vol. 3, No 3, 1997, pp. 341–363.
- Zahavi, D., “We in Me or Me in We? Collective Intentionality and Selfhood”, *Journal of Social Ontology*, Vol. 7, No. 1, 2021, pp. 1–20.
- Zahavi, D. & Salice, A., “Phenomenology of the We: Stein, Walther, Gurwitsch”, In: J. Kiverstein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the Social Mind*, London: Routledge, 2016, pp. 515–527.

## ABSTRACT

### Hong Il-Sik's Discourse on Filial Piety and the Universal Practical Ethics of a *We*-community

PARK, Tchi-Wan<sup>102)</sup>

Today, the discourse on filial piet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eems to be more focused on the practice of filial piety than on clarifying its philosophical meaning. However, when the focus shifts to the issue of filial piety's practice the scope of filial piety's application is reduced to a mere issue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is process, the traditional values that filial piety originally had (such as communal values, reverence for heaven, etc.) are relegated to the level of an outdated and old-fashioned ideology and become targets of criticism.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discourse on filial piety of Hong Il-Sik, who devoted his entire life to studying "Korean filial piety" and attempted to transform the 21st century into an era of humanistic and people-centered spiritual revolution through filial piety. Hong Il-Sik's discourse on filial piety presents the following new claims that are difficult to find

---

102)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or

in existing domestic studies: i) The original country of filial piety is not Confucius's China, but Korea. ii) The true meaning of filial piety is not children unilaterally serving and sacrificing for their parents, but rather mutual exchang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its essence lies in reciprocity. iii) "Korean filial piety" is not limited to a culture of utensils or a culture of norms, but is a kind of culture of ideas, which has aimed to "create a common culture of humanity that is the highest and best." iv) When citizens of the global village 'become one family through love' by practicing such values of filial piety, the global village will no longer suffer from conflict, discord, war, and other pains, but will share a new "cultural territory" filled with consideration for others, respect, and peace.

In this way, Hong Il-Sik's discourse on filial piety contains a message of salvation for the global village, that is, for a We(human)-community. In that sense, his discourse on filial piety is worthy of being evaluated as a global (universal) practical ethic that transcends the local geographical boundaries of "Korea", which is the final conclusion of this study.

Keywords: Filial Piety, Filial Piety's Practice, Universal Practical Ethics, We-community, Cultural Territory, Hong Il-Sik

## 박 치 완

전 자 우 편 : chwpark001@hanmail.net

논문 접수일 : 12월 14일

심사 완료일 : 12월 28일

게재 확정일 : 12월 29일

## 한류의 발전 단계 구분에 관한 연구

김정우<sup>1)</sup>

### [국문초록]

홍일식이 주창한 문화영토론은 문화가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공유함으로써 인류가 반목과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 가치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이 만들어낸 대중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고, 또한 한국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출물들을 통해 세계인들이 평화롭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한류의 발전 단계를 제시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가기 위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발전 단계 구분 패턴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콘텐츠의 성과’, ‘콘텐츠 확산 방식’, ‘한류의 확장’ 등의 기준을 추출하였다.

‘콘텐츠의 성과’는 콘텐츠 그 자체가 그 이전 단계의 콘텐츠들보다 새롭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음을 뜻한다. 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

---

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츠의 확산 방식'은 전 세계인들의 향유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한류의 확장'은 장르적인 측면에서 한류가 얼마나 다양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결국 이 세 가지 기준은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류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통해 문화영토론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다 원활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문화영토론, 한류, 소프트 파워, 콘텐츠의 성과, 콘텐츠 확산 방식, 한류의 확장

## 1. 서론

미디어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문화에 대한 국가의 투자 증대, 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향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현상 등의 요인으로 국가 간의 문화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 세계인들은 이제 누리는 문화의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향유하고 즐기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인 팬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함께 문화를 공유하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류로 명명된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를 향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 역시 높아지고 있다. 상대방 국가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과는 달리 문화적 영향력은 문화가 갖고 있는 매력을 기반으로 ‘문화의 공유’를 통해 상호간 호감을 갖게 되며, 그로 인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선한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제안이 바로 홍일식이 주창한 문화영토론이다. 그러니까 문화영토론은 한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영토론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한류가 발전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인 것이다. 연구자들은 한류의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 한류의 발전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한류의 발전 단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각 단계마다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무슨 요인에 의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

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큰 사건을 중심으로 막연하게 단계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한류가 발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 이전과 명확히 차별화 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통해 이전 단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한류 연구자들이 제시해 온 한류의 발전 단계를 검토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 발전 단계의 기준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한류의 발전과 확산은 곧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과 직결된다.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영토론에 대해 간략하게 개관하고, 문화영토론과 한류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자들의 한류의 발전 단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비교·분석해보고, 이들을 바탕으로 발전 단계의 기준을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2. 문화영토론의 개념

전통적인 개념에서 영토란 대체로 정치적 영토와 시장적 영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성격은 다르지만, 배타적 통치권 확보

의 성격이 강한 정치적 영토와 경쟁적인 경제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시장적 영토의 공통점은 국가 간의 분쟁과 반목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분쟁은 전쟁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분쟁은 국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이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1970년대 말 홍일식에 의해 주창된<sup>2)</sup> ‘문화영토’이다. 문화영토는 대립과 갈등의 표상이던 정치적 영토 및 시장적 영토와는 달리 포용적, 통합적 개념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선(善)한 문화’의 공유를 통한 대립과 갈등의 최소화를 지향한다.<sup>3)</sup>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된 문화영토론은 기존의 열강들에 의해 자행된 경쟁적이고 독점적인 영토개념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선한 문화의 공유를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신념에서 시작된 영토개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 영토나 시장적 영토와 마찬가지로 문화영토 역시 그 영역의 확장을 주도하는 나라가 있게 마련이다. 배타적인 정치적 영토나 시장적 영토가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영토를 넓혀왔기 때문에, 문화영토 역시 문화적 제국주의와 혼동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제국주의는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문화적 민족주의는 조화에 그 목적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문화가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대립과 반목을 넘어 공존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2) 홍일식, 『나의 조국 대한민국』, 동서문화사, 2014, 344쪽.

3) 김정우, 「오늘의 관점에서 본 문화영토론의 실현 방안」, 『문화영토연구』, 창간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0, 102쪽.

### 3. 문화영토론과 한류

제레미 리프킨은<sup>4)</sup> 1960~70년대의 미국이 주도하던 시대에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시대라고 지적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은 성공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기회를 기반으로 경쟁적으로 물질적인 부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제레미 리프킨은 이제 그러한 가치관이 쇠퇴하고 ‘유로피언드림(European Dream)’을 기반으로 한 유럽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주장했다. 유로피언 드림을 이루는 가치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문화의 힘과 관련된 것은 ‘동화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정신 등이다.

홍일식은 하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지배한다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지금은 동양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동양의 세력이 서양을 지배한다는 ‘동세서점(東勢西漸)’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sup>6)</sup> 이전 시대를 지배하던 하드 파워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가 바로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에서 비롯된 한류이다. 오늘날 한류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영

---

4) Jeremy Rifkin, 이원익 옮김, 『유러피언 드림』, 민음사, 2005, 11-12쪽.

5) 홍일식, 앞의 책, 80-83쪽.

6) 소프트 파워는 문화, 외교, 정치적 가치관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힘을 말한다.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발생시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힘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처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드 파워와 대별된다. - Joseph S. Nye, 홍수원 옮김, 『소프트 파워』, 세종연구원, 2004, 30-32쪽.

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한류’라는 단어가 등재된 일이다.<sup>7)</sup> 이는 한류가 영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번역어인 Korean Wave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allyu를 통해 한류를 ‘한류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에 오늘의 한류는 단순히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넘어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선, 한류를 통해 국가의 위상이 달라졌다. 최광식은 수동적인 문화수신국으로서 외국의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능동적인 문화발신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sup>8)</sup> 최광식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던 실크로드를 패러디하여 이제 우리의 문화가 서구사회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한류로드’라고 명명하고, 서구 사회 위주의 문화발신국대열에 대한민국도 동참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제시하였던 홍일식의 ‘동세서점(東勢西漸)’의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류의 영향력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상업활동이 아니라, 국부와 국력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sup>9)</sup>

한류는 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 파워로서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영토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 안보, 경제, 통상 등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던 1980~90년대 한국 외교가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 경제, 문화

7) 김정우, 「OED에 나타난 한류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 『문화영토연구』, 제2권 2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1, 13쪽.

8) 최광식, 『한류로드』, 나남, 2013, 20쪽.

9) 김은기 외, 『한류와 역류-문화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23쪽.

라는 세 개의 축으로 변모해 간 것은<sup>10)</sup> 한류가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외교의 성패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한류의 발전 단계 구분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한류의 시작점은 1990년대 초반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1)</sup> 한류의 시작을 1990년대 초반으로 본다면, 지금의 관점에서 한류의 역사가 30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그 시발점은 한국 드라마의 중국 수출이다. 1993년 한국 TV드라마 <질투>를 중국에 수출하였고, 1997년 중국 CCTV에서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가 4.3%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사랑이 뭐길래>는 이미 1994년에 수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의 허가 및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방영이 늦어진 것이어서<sup>13)</sup> 수출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면 한류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류는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취향변화, 시대적 분위기의 변화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공한 극소수의 콘텐츠만이 수익을 독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들은

---

10) 위의 책, 225쪽.

11) 물론, 용어의 등장 이후를 한류의 시작점으로 보는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채지영(2020)에서는 1990년대 말을 한류의 시작점으로 보고, 2020년에 『한류 20년 성과와 미래전략』을 발간한 바 있다. - 강조는 저자가 한 것임.

12) 이용, 「'질투'부터 BTS까지...한류 초석놓은 문화교류 40년 변천」, 『연합뉴스』, 2019년 5월 15일(검색일자: 2024년 3월 2일) -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40년이라는 언급은 1979년 일본 도쿄에 주일한국문화원 설치로부터 비롯된 것임. 기사 중에서도 한류의 역사는 20년 정도라고 언급되어 있음.

13) 진달용, 『한류 신화에 관한 10가지 논쟁』, 한울아카데미, 2022, 44쪽.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 역시 치열한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류를 지탱하고 있는 콘텐츠가 기반이 되겠지만, 미디어와 미디어를 활용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 그리고 미디어의 활용을 활성화 시키는 플랫폼의 등장 등등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되게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의 패턴이 등장하게 되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한류의 단계 구분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단계 구분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에 나타난 전반적인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해 보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표 1>과 같다.

분석 이전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연구가 이루어진 연도의 문제이다. 한류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당연히 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읽어 낼 수 있는 내용 역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 1> 검토 대상 선행연구 목록

저자	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매일경제 한류분석 프로젝트팀 <sup>14)</sup>	2012	~ 2000년대 초	2004 ~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화권 중심	일본, 동남아	글로벌화	
		K-드라마, K-Pop	K-드라마	K-Pop	
김정우 외 <sup>15)</sup>	2016	1990~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중국 중심	일본, 동남아	글로벌화	
		K-드라마, K-Pop	K-드라마	K-Pop	
채지영 <sup>16)</sup>	2020	~2003년	2004~2009	2010~2016	2016 이후
		중국, 동남아	일본, 중국, 동남아	일본, 유럽	전세계
		K-드라마, K-Pop	K-Drama 및 OST	K-Pop	K-Pop, K-드라마

저자	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양수영 이성민 <sup>17)</sup>	2022	1990년대 중반~2002	2003~2009	2010~2017	2018~현재
		중화권 중심 일본·동남아	아시아 전역	아시아 전역+ 아시아 외 지역	
		K-드라마 K-영화 K-Pop (1세대 아이돌)	K-드라마 K-영화 K-Pop (1.5세대 아이돌)	K-영상물, K-Pop (2세대 아이돌) 게임 외 장르	K-영상물 K-Pop (3세대 아이돌) 그 외 다양한 장르 및 생활문화 포괄
홍석경 <sup>18)</sup>	2023	2000~2010	2005~2016	2016~현재	
		동아시아	전 세계	글로벌 화	
		K-드라마	K-Pop	K-Pop, K-드라마, K-Movie	

### 1) 매일경제한류본색프로젝트팀(2012), 『한류본색』

이 연구가 한류의 발전단계를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발표된 시점이 2012년이기 때문에 <표 1>에서도 보이듯이 사실상 2000년대 10년 간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연히 다루고 있는 내용도 단편적이고, 연대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연구성과 발표 당시에는 한류의 발전이 단순히 콘텐츠의 인기와 연계되어 있었지만, 『한류본색』에서는 이를 넘어 한류가 세계인들의 생활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어 발전 단계를 5단계로 구성하였다.<sup>19)</sup>

14) 매일경제 한류본색프로젝트팀, 『한류본색』, 매일경제신문사, 2012, 53-54쪽.

15) 김정우 외, 『한류 3.0의 확산과 궁중문화』, 황금알, 2016, 19-20쪽.

16) 채지영, 앞의 책, iv 쪽.

17) 양수영·이성민, 『한류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4쪽.

18) 홍석경, 「한류의 세계사적 의미」, 『한류와 대중문화 특별전 연계 학술대회 발표문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3, 18쪽.

19) 매일경제한류본색프로젝트팀, 앞의 책, 54쪽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주요 이벤트	소구 & 진입	공감 & 확산	수평적 확산 (스노우볼)	음식, 의복 등 수직적 확산	기저문화화

[그림 1] 한류 발전 단계

1단계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콘텐츠의 존재를 알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해외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단계이며, 2단계는 1단계가 심화됨에 따라 팬들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내고, 그에 따라 확산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특정 콘텐츠가 전세계의 보다 많은 팬들에게 널리 확산되는 단계를 말하며, 공감하는 팬들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확산의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는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단순한 대한민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 파고들어 알고 싶어하는 수직적 확산의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한류가 타문화권 팬덤들의 인식 속에 그들의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류본색』에서는 지금(2012년)의 한류는 3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의 한류 상황을 보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4단계, 5단계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기본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김정우 외(2016), 『한류 3.0의 확산과 궁중문화』

『한류3.0의 확산과 궁중문화』에서는 한류의 발전 단계를

1.0~3.0으로 명명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단계의 구분에서는 『한류 본색』과 큰 차이가 없다. 『한류본색』보다 4년 늦은 2016년에 발표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한류의 급성장세가 두드러졌던 관계로 한류의 확산에 관해서는 ‘다양화’와 같은 추상적인 제안 외에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독특한 것은 다른 연구들이 한류의 발전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중국 내의 한류 확산을 저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한한령(限韓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3) 채지영(2020), 『한류 20년, 성과와 미래전략』

2020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한류20년, 성과와 미래전략』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두 편의 선행연구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여기에서는 K-Pop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대중문화로서의 한류에서 K-Pop의 인기가 압도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K-Pop을 동력으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K-Pop 일변도라는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는 총 4단계로 한류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K-Pop 1세대 아이돌을,<sup>20)</sup> 3단계에서는 2세대 아이돌

20) 현재 한국에서는 데뷔한 시기나 팬덤 확보 방식에 따라 1세대~4세대로 아이돌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 5세대 아이돌의 탄생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언급은 많이 되고 있지만, 학술적인 구분은 아니다. 1세대 아이돌은 1997~2003년에 데뷔한 아이돌들로, 해외 시장을 처음 개척한 아이돌들을 말한다. 2세대 아이돌은 2004~2011년에 데뷔한 아이돌들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아이돌들이다. 3세대 아이돌은 2012~2018년에 데뷔한 아이돌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아이돌들을 가리킨다. 4세대 아이돌은 2018년 이후에 데뷔한 아이돌들로, 데뷔 전부터 해외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자연

을, 4단계에서는 별도로 BTS를 제시함으로써 단계별로 음악의 변화를 세분화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한류20년, 성과와 미래전략』에서는 한류의 발전 단계 이외에도 한류의 소비 단계를 별도로 정리·제안함으로써 한류가 소비자들의 소비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한류가 어떻게 높여갈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단순히 대중문화에만 시각이 머물러 있지 않고, 앞서 『한류본색』에서 언급했던 ‘수직적 확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4) 양수영·이상민(2022), 『한류의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

〈표 1〉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한류의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전 단계는 『한류20년, 성과와 미래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연도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일 뿐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21)</sup> 여기에서도 단계 구분에 있어 주요 지표가 되는 것은 K-Pop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1세대 아이돌, 2단계에서는 1.5~2세대 아이돌, 3단계에서는 2세대 아이돌, 4단계에서는 3세대 아이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연구와는 달리 3단계와 4단계에서 K-영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연구들이 주로

---

스럽게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팬덤을 갖게 되는 아이돌들을 말한다. - 황미애, 「0~5세대 아이돌 세대 구분 기준은?」, 『나남뉴스』, 2023년 5월 1일, (검색일자: 2024년 3월 7일)

21) 유사하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들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유사한 단계 구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K-Drama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K-영상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3단계부터 게임이 등장함으로써 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

### 5) 홍석경(2023), “한류의 세계사적 의미”

앞선 연구들이 단행본이나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것임에 반해 “한류의 세계사적 의미”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최한 <한류와 대중문화 특별전>의 연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한류의 세계사적 의미”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3단계로 한류의 발전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계 구분을 매개방식과 수용현상의 특성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22)</sup> 따라서 연도 구분 역시 기존 연구자들과 차이가 있다. “한류의 세계사적 의미”는 기점을 2000년으로 삼고 있고, 2단계를 2005년, 3단계를 2016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1단계는 지상파와 위성을 통해 동아시아 내에서 대대적 수용현상이 일어난 기간이며, 2005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는 인터넷 2.0 환경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팬덤이 형성된 시기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된 3단계는 새로운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글로벌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 구독형 VOD)를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청자들이 폭증하는 시기를 말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콘텐츠들의 역할이 컸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의 경우 매개방식과 수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한류의 발전 단계를 연구

---

22) 홍석경, 앞의 글, 19쪽.

하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제안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홍석경의 연구를 제외하면 한류의 발전 단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시각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대체로 콘텐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류가 콘텐츠를 통해 활성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콘텐츠만으로 발전해 나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방식과 수용에 초점을 맞춘 홍석경의 연구처럼 콘텐츠 외적인 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5. 한류의 발전 단계 구분 기준

한류의 발전 단계를 기술하기 위한 명확한 단계 구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한류가 발전해오면서 어떠한 내외부적 요인들이 작용하였으며,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한 요인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수렴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콘텐츠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콘텐츠의 확산성으로서, 미디어 및 플랫폼의 역할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한류의 확장성이다. 이에 관해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해보기로 한다.

한류의 발전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첫 번째로 콘텐츠를 꼽은 것은 무엇보다도 한류를 불러일으키고, 전 세계의 팬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왔고, 아직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K-Pop이나, K-Drama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되었든 한류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였다면, 그것이 바

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은 콘텐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창의적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팬덤을 확보하고 전 세계 팬들에게 영향력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창의성이 뛰어나게 발휘되어도, 세계의 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콘텐츠의 확산 방식이다. 한류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는 동안, 전 세계의 한류 팬들이 한류와 접촉하도록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미디어이다. 미디어가 없었다면 한류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한류가 태동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팬들은 그 이전 시대부터 이어오던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에<sup>23)</sup> 의존하여 그 이전의 방식 그대로 콘텐츠들과 접촉해왔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주요한 광고 매체가 기존의 전통 매체에서 디지털로 확장되거나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sup>24)</sup> 언급에서 보이듯이 광고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의 접촉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로 접촉면이 넓어지게 되었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접촉의 비중은 급속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한 것은 디지털 미디어 단말기의 ‘개인화’ 및 ‘모바일화’이다. 개인마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콘텐츠와 접촉하는 방식을 레거시 미디어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꾼 것이다. 거기에 인터

23) 현재에도 여전히 사용되지만 과거에 출시되었거나 개발된 전통 미디어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TV(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신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4) 김정우 외, 『디지털 시대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신론』, 학지사, 2022, 335쪽.

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플랫폼이나 SNS들의 등장은 콘텐츠와의 접촉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공유, 재생산 등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더욱 많은 팬들이 한류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세 번째 기준은 한류의 확장성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류는 대중문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류본색』에서 ‘수직적 확산’과 ‘기저문화화’를 제안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있지만, ‘수직적 확산’은 한국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처음엔 한국의 대중음악이나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으나, 접촉 경험이 많아지면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먹는 한국 음식이 궁금하다,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장소를 가보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이 모여서 한국을 관광해 보고 싶다 등 대중문화에서 비롯된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을 점점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이 경제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로서의 한류는 단순히 경제적인 수익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한국의 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발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6. 한류의 발전 단계 제안

이상의 기준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한류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 1) 1단계 : 1990년대 중반~2002년

#### (1) 콘텐츠의 성과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질투>, <사랑이 뭐길래>, <별은 내 가슴에> 등의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어 높은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 드라마의 수출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중국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이전의 콘텐츠들이 거두지 못하던 성과였다. 또한 1990년대 말에는 클론이나 H.O.T 등의 남성 그룹들이 대만을 거쳐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만에 진출하였으며, 대만에 이어진 중국에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 (2) 콘텐츠의 확산 방식

1단계의 팬들은 모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한류를 접할 수 있었다. 거기에 그 당시의 뉴미디어로 꼽혔던 위성방송과 방송의 다채널화 등은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음악을 접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특히, 클론이나 H.O.T. 등의 대형 콘서트는 방송 활동을 통해 얻은 인기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게 하는 통로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문 및 방송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확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

### (3) 한류의 확장

1단계는 본격적으로 한류의 세계화를 모색한 시기이기도 하며,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 시기부터 한류가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 2) 2단계 : 2003년~2009년

### (1) 콘텐츠의 성과

2003년부터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대열풍을 일으켰으며, 특히 4~50대 일본 여성 팬들이 급증하였다. 이어 <대장금>, <주몽> 등의 역사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TV 드라마가 중화권을 넘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게 되었다. 드라마 이외에도 2004년 영화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2007년 <밀양>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의 영상물들이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큰 인기를 거두었다.

K-Pop에서는 동방신기나 빅뱅, 소녀시대 등의 아이돌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내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한 1단계의 아이돌과는 달리, 2단계의 아이돌은 처음부터 일본 및 중국 시장을 목표로 결성된 아이돌로서,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콘텐츠의 성과 중 하나는 K-Game의 세계시장 진출이다. 2005년에 런칭된 <던전앤파이터>가 중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등 적극적인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하게 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2) 콘텐츠의 확산 방식

2단계의 콘텐츠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권에만 머물러 있던 한류가 드라마를 통해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만큼 한류가 진출하는 시장이 넓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2단계 초기의 한류 인기를 견인한 드라마의 경우는 TV나 DVD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접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1998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 및 PC방의 확대는 게임 인구의 급증을 이끌어내었고, 국내 게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린 게임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5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유튜브가 2008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한국의 콘텐츠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한국에서 페이스북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넓고 자유로운 연결성을 장점으로 하는 SNS가 한류의 확산을 이끌기 시작하였다. 한국에도 본격적인 SNS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007년에는 애플사가 아이폰을, 2009년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발매,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스마트폰 시대를 열게 되었고, 이는 개인화와 모바일화를 최적화 시켜줌으로써 콘텐츠의 접촉면을 극대화시켰다.

## (3) 한류의 확장

2단계는 한류가 아시아권에서 광범위한 확산을 시작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에 힘입어 정부에서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수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발족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일본과 중국 사무소에 이어 2003년 미국, 2004년 유럽 사무소를 개설,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를 열게 되었다.

### 3) 3단계 : 2010년~2017년

#### (1) 콘텐츠의 성과

2010년부터 K-Pop 아이돌이 일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일본에서의 '2차 한류붐'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통해 중년 여성들이 주를 이루던 일본의 한류팬들이 젊은 여성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더욱 활발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는 팬덤이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3단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K-Pop 아이돌의 콘서트가 유럽에 진출한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2011년 6월에는 파리에서 SM 소속 아이돌의 콘서트가, 12월에는 런던에서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의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2012년 2월에는 KBS의 〈뮤직뱅크〉의 파리공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럽에 진출하여 유럽 지역에서의 한류 인기를 드높일 수 있었다.

이 시기의 K-Drama는 K-Pop에 비해 다소 주춤한 상태였으나, 〈별에서 온 그대(2014)〉, 〈태양의 후예(2016)〉 등이 중국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매뉴얼 역할을 하는 K-Format의 수출을 통해 한국의 창의성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또한, 3단계에서는 K-Game이 2단계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특히 스마트폰 기반 게임인 <애니팡>은 단 시일 내에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 (2) 콘텐츠의 확산 방식

3단계에서는 2단계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SNS와 각종 플랫폼들이 한류 확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은 레거시 미디어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확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스마트폰은 이러한 확산을 실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K-Pop 아이돌은 이전에 TV 방송을 통해 신곡 홍보를 시작하였으나, 이 시기부터는 유튜브를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이용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새로운MV를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활성화된 SNS는 팬들 사이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 팬덤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한류의 확산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었다.

## (3) 한류의 확장

3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한류의 확장은 <별에서 온 그대>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치맥 붐이다. 이를 포함하여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각종 문화적 코드들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런 성과는 이후 한국의 음식, 패션, 미용 등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 4) 4단계 : 2018년~현재

##### (1) 콘텐츠의 성과

4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3단계에서 다소 주춤했던 K-Drama가 다시 위력을 되찾으면서 K-Pop과 함께 한류의 쌍두마차로 활약하게 된 것이다.

4단계의 K-Pop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BTS의 세계적인 성공이다. 빌보드 핫100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BTS는 전세계적인 팬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세계 정상급 아이돌로 자리 잡았다. 거기에 블랙핑크, 슈퍼엠 등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팬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스트리밍, 굿즈 소비, 공연 관람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적극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응원하는 아이돌을 위해 각종 선행을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K-Drama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성공이다. 동양권에서만 맴돌던 K-Drama를 일약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해 준 계기는 넷플릭스이다. 이후 여러 시리즈들이 연속적인 히트를 치면서 K-Drama는 K-Pop 못지않은 팬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 (2) 콘텐츠의 확산 방식

콘텐츠의 확산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K-Pop의 확산 방식은 3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K-Drama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가져왔다.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넷플릭스이다. 1997년 미국에서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한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OTT(Over The Top)로 성장했다. 2016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한국의 제작자들은 기존의 TV나 극장 이외에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방영창구를 갖게 되었고,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힘입어 전 세계의 시청자들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넷플릭스는 2017년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제작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의 많은 시리즈물들이 투자를 받아 세계인들과 만날 수 있었다.

또한, 2016년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7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틱톡은 기존의 강력한 동영상 플랫폼이었던 유튜브와는 차별되는 숏폼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젊은 소비자들을 단숨에 끌어들었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여 유튜브는 ‘쇼츠’를,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개발하여 숏폼 서비스 시장을 넓히고 있다. 재미있는 영상을 쉽게 만들어 올리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숏폼을 통해 한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인들과 만나는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 (3) 한류의 확장

4단계에서 한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기생충〉과 〈오징어게임〉에서 등장한 짜파구리, 달고나,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놀이 등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 요소들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음식, 패션, 미용 등과 함께 더욱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한국의 다양

한 문화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관 산업들의 동반진출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등 한류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 결론

1945년에 제정된 유네스코(UNESCO)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sup>25)</sup>

위의 인용문은 인류에게 선한 문화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전달해 준다.

문화영토론에 담긴 가치는 유네스코의 헌장에 담긴 위 인용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문화가 갖고 있는 선한 영향을 전파함으로써 인류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영토론의 기본 이념이기 때문이다.

한류는 문화영토론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류의 발전 단계에 주목하여,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

---

25) [유네스코 헌장],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96173&cid=43161&categoryId=43161#TABLE\\_OF\\_CONTENT](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96173&cid=43161&categoryId=43161#TABLE_OF_CONTENT), (검색일자: 2024년 3월 2일)

류의 발전 단계를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적인 패턴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을 통해 한류의 발전 단계 구분의 기준으로 ‘콘텐츠의 성과’, ‘콘텐츠의 확산 방식’, 그리고 ‘한류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콘텐츠의 성과’는 콘텐츠 그 자체가 그 이전 단계의 콘텐츠들보다 새롭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음을 뜻한다. 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의 확산 방식’은 전 세계인들의 향유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한류의 확장’은 장르적인 측면에서 한류가 얼마나 다양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결국 이 세 가지 기준은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류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통해 문화영토론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다 원활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김은기 외, 『한류와 역류 - 문화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 김정우 외, 『한류 3.0의 확산과 궁중문화』, 황금알, 2016.
- , 『디지털 시대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신론』, 학지사, 2022.
- 매일경제 한류본색프로젝트팀, 『한류본색』, 매일경제신문사, 2012.
- 양수영·이성민, 『한류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 진달용, 『한류 신화에 관한 10가지 논쟁』, 한울아카데미, 2022.
- 채지영, 『한류 20년, 성과와 미래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최광식, 『한류로드』, 나남, 2013.
- 홍일식, 『나의 조국 대한민국』, 동서문화사, 2014.
- Jeremy Rifkin, 이원익 옮김, 『유러피언 드림』, 민음사, 2005.
- Joseph S. Nye, 홍수원 옮김, 『소프트 파워』, 세종연구원, 2004.

### □ 참고 논문

- 김정우, 「오늘의 관점에서 본 문화영토론의 실현 방안- 한류를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창간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0, 97-118쪽.
- , 「OED에 나타난 한류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 2021년 9월 신규 업데이트 단어들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제2권 2호, (재)문화영토연구원, 2021, 5-37쪽.
- 홍석경, 「한류의 세계사적 의미」, 『한류와 대중문화 특별전 연계 학술대회 발표문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3, 17-21쪽.

### □ 기타 자료

- 이 응, 「'질투'부터 BTS까지...한류 초석놓은 문화교류 40년 변천」, 『연합뉴스』, 2019년 5월 15일(검색일자: 2024년 3월 2일)
- 황미애, 「0~5세대 아이돌 세대구분 기준은?」, 『남남뉴스』, 2023년 5월 1일(검색일자: 2024년 3월 7일)
- 유네스코,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ges of Hallyu

Kim, Jungwoo<sup>26)</sup>

The cultural territorial theory advocated by Hong Il-sik makes it the ultimate value to find a way for mankind to coexist peacefully without antagonism and conflict by sharing the good influence of culture. In the case of Korea, Hallyu plays a role. As the popular culture created by Korea is lov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Korea's cultural influence grows, and it also plays a role in allowing people around the world to live peacefully and enjoy happiness through cultural products created by Korea.

In order for Hallyu to develop continuously,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predict the future of Hallyu. Several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e stage of development of Hallyu, but there is no standard for developing it to a new stage ye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attern of dividing the development stage of existing researchers was examined, and criteria such as 'content performance', 'content diffusion method', and 'expansion of Hallyu' were extracted from them.

The 'content performance' means that the content itself has

---

26)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General Graduate School, Professor

a new and stronger competitiveness than the contents of the previous stage. The 'content diffusion method' related to the media focuses on how people around the world enjoy it. The 'expansion of Hallyu' examines how diversified Hallyu has been in terms of genre.

In the end, these three criteria can be strategic point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Hallyu. Through this,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find ways for Hallyu to move forward in the future, and through it, it will be able to spread the values pursued by the cultural territory theory more smoothly.

Keywords : cultural territory theory, Hallyu, soft power, performance of content, content diffusion method, expansion of Hallyu

**김 정 우**

전 자 우 편 : kkk1223@korea.ac.kr

논문 접수일 : 12월 20일

심사 완료일 : 12월 28일

게재 확정일 : 12월 29일



# K-pop의 재영토화

## - 한류의 범세계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문화와 영토'에 대한 탐구<sup>1)</sup>

엄혜경<sup>2)</sup>

### 1. 서론

본 논문은 한류의 범세계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K-pop의 문화와 영토에 대한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를 논의합니다. 필자는 홍일식의 '문화영토론'을 이론적 배경으로서 간략히 논의한 후, 아파두라이(Appadurai)의 세계화 이론(1990)과 룰(Lull)의 재영토화 이론(1995/2000)을 살펴보면서 세계 문화경제의 일부로서의 한류와 K-pop의 문화적 영토화의 관점에서 K-pop의 생성과 수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영국에서 K-pop 프로듀싱 및 소비와 관련된 몇 가지 동향을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K-pop 팬, 작곡가, 프로듀서, 연주자 및 영국 현지 미디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이러한 특정한 초국가적 맥락과 영향이 어떻게 K-pop과 한류를 글로벌 크리에이티

1) 본 글은 2024년 10월 12일 개최된 '(재)문화영토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발표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나, 한국어로 번역한 원고를 수록하였습니다.

2) 리버풀대학교 교수

브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게 하고, 한류와 K-pop이 양방향의 문화적 흐름과 트랜스액션을 장려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문화와 영토

홍일식의 '문화영토' 이론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홍일식은 영토의 두 가지 상반된 개념, 즉 국가의 이익과 그 법, 즉 국가의 이익과 법률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영토'와 평화, 조화, 타협을 존중하는 '문화영토'를 상정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시장영토(market territory, 혹은 경제영토)'인데, 이는 지리학적 경계를 초월합니다(Kim 2020: 99에서 인용). 홍 교수는 '문화영토'라는 개념이 '문화세계주의'와 '문화주의'를 촉진하고, 서구의 문화제국주의와 과거의 패권주의를 종식시키며, 서로 다른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며, 그 결과 보편적인 세계문화로 수렴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문화영토'는 또한 '새로운 휴머니즘'을 촉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ibid.). 그러나 나는 동시에 이상주의에 기초한 이 이론이 이데올로기적 영토와 문화영토, 시장영토 간이나 내부의 연관된 상호작용을 연계하는 부분(과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토 안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소통하며 심지어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시장적 영토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토 자체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고정되거나 봉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일식의 '이데올로기 영토', '문화영토', '시장 영토'라는 개념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의 전지구적 역학을 보다 신랄하게 검토한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의 세계화 이론(1990)에 의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앤더슨(Anderson)의 '상상된 커뮤니티' 이론(1983)에 기초하여, 아파두라이는 '새로운 세계적 문화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을 제안했는데, 아파두라이에 따르면 그 자체가 '무질서한 자본주의'의 산물이자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의 복합체입니다(Appadurai 1990: 328). 특히 아파두라이(Appadurai)는 '영역(scapes)'의 유동성과 스케이프(perspective)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스케이프'를 이론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파두라이의 다섯 가지 '스케이프'(ibid., 7-10)는 다음과 같이 한류와 한류에 매우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ibid., 7). 예를 들어, K-pop 에스노스케이프는 아티스트, 프로듀서, 작곡가, 심지어 관객까지 범세계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됩니다. 영국에서는 많은 K-pop 싱글과 앨범이 영국의 아티스트에 의해 작곡되고 프로듀싱 되었는데, 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곡 'Dynamite'(2020)는 데이비드 스투어트와 제시카 아곰바가 공동 작곡하고 데이비드 스투어트가 프로듀싱했습니다. 이 곡은 또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한국 싱글이며, 많은 국제 팝 차트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sup>3)</sup> 또 다

3) 'Dynamite': <https://www.youtube.com/watch?v=gdZLi9oWNZg>, official MV.

른 예로, 다양한 K-pop 공연을 위한 다수의 싱글과 앨범을 작곡하고 제작한 영국의 프로듀싱과 작곡가 듀오인 Arcade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빅히트/하이브), 투모로우바이투게더(빅히트/하이브), 태민(SM), 엔하이픈(벨리랩/하이브), 갯세븐(JYP), 샤이니(SM), 키(SM) 등을 위해 유럽의 많은 작곡가와 프로모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sup>4)</sup> 많은 유럽의 작사가와 프로모터들이 영국, 특히 런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재 J-pop, C-pop 및 Eurovision pop을 포함한 K-pop 및 국제 음악 시장의 중요한 음악 산업 허브가 되었습니다. 일부 영국과 유럽의 K-pop 작곡가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서울에 기반을 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을 자주 방문하기도 합니다. 영국 작곡가들이 협업한 많은 K-pop 노래들의 트랙은 Spofy, Soundcloud, Instagram 및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sup>5)</sup>

K-pop 에스노스케이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K-pop이 전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글로벌 팬덤입니다. K-pop 팬덤 역시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에 의해 힘을 얻고 동원되고 있습니다(아래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와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 참조). K-pop 팬덤은 헨리 젠킨(Henry Jenkin)의 '팝 코스모폴리타니즘(pop cosmopolitanism)' 개념과 연결되어, 대중문화의 초문화적 흐름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의식과 문화적

---

viewed over 1.8 billion times since 21 Aug 2020.

4) Official website of Arcades: <https://www.arcadesuk.com/>.

5) For example, Spofy playlist of the Liverpool born K-pop songwriter Jess Pierpoint: [https://open.spotify.com/playlist/2aGHcUjgVBZmu8OR9n34RN?si=Raw\\_tTpiTradrZyc428CZw&pi=ahDTIN6zMQSq&nd=1&dlsi=2fea007ad15c4c62](https://open.spotify.com/playlist/2aGHcUjgVBZmu8OR9n34RN?si=Raw_tTpiTradrZyc428CZw&pi=ahDTIN6zMQSq&nd=1&dlsi=2fea007ad15c4c62).

역량을 고취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Jenkins 2004: 117). 이러한 팝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글로벌 K-pop 팬덤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K-pop 팬덤은 현대 영국 사회의 인구통계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문화적, 다민족적 구성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독일(Fuhr 2013), 오스트리아(Sung 2013), 프랑스(Cicchelli, Octobre and Riegel 2019)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영국 K팝 팬덤의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는 동아시아인, 동남아시아인, 남아시아인, 아프리카-카리브인, 백인, 혼혈로 구성됩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계약직 직원 등 영국 출신이 아닌 단기 거주자들이 이러한 K-pop 인구통계에 가시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Um 2013: 31).

많은 팬들이 젊은 세대거나 여성이며, 이는 다른 글로벌 K-pop 팬 커뮤니티와 공통적입니다. 영국 K-pop 팬덤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2011년 이후 영국 전역에 대학 K-pop 동아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K-pop 동아리가 다양한 학생 사회와 동아리를 수용하는 학생회의 일부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K-pop 동아리는 다문화 및 다인종적 멤버십을 즐기며 이러한 인구통계는 영국 고등교육기관(대학)의 국제화된 학생 층원 현상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류와 K-pop은 이제 현대 영국 대학 문화 환경의 코스모폴리탄 태피스트리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pop 동아리 구성원은 더 이상 동료들과 분리되거나 고립된 소외된 아시아 대중음악 팬 집단이 아니라 현대 코스모폴리탄 학생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Um 2019: 7-8).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는 다양한 경계를 넘어 고속으로 움직이는 유체, 기술, 높고 낮은 기술, 기계 기술과 정보 기술의 글로벌한 구성과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화폐 흐름, 정치적 가능성, 그리고 비숙련 노동과 고도로 숙련된 노동의 가용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주도됩니다"(Appadurai 1990: 8). 디지털 기술은 2006년 한국이 주요 음악 시장 중 최초로 50% 이상의 디지털화를 달성한 이래 K-pop과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K-pop 팬덤은 대체로 이 테크노스케이프에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5G,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다양한 신기술이 한류 상품과 K-pop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CT)'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후반 SM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인 이수만 대표에 의해 처음 소개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능력있는 에이전시는 K-pop 아티스트를 해외에 대중화하기 위한 4가지 핵심 단계인 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마케팅/매니징으로 구성된 '문화기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2011 SM TOWN in Paris'에서 이수만 대표는 성공적인 한류 발전을 위한 3단계를 제시했습니다: (1) 제품 수출, (2)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진출 기업과의 협업, (3) 한류 기업과의 합작투자 설립(Chung 2011). 그리고 국제 기업과의 합작투자의 경우, 한국의 텔런트 에이전시는 K-pop 노래가 외국에서 '현지'적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외국 작곡가, 프로듀서, 안무가를 고용해야 합니다(Chang and Choi 2011). 이수만은 2016년 SM 전용 시스템을 도입한 '신문화 기술(New Culture Technology, NCT)'

을 발표하고 아티스트 모집을 해외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pop 프로듀싱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1996년 SM의 첫 보이밴드 H.O.T.가 데뷔한 시점)부터 2010년대 중반(2016년 SM의 보이밴드 NCT가 데뷔한 시점)까지 개발된 것을 말합니다(Lee 2022). 또한 기술의 개념이 어떻게 고안되고 제시되는지, 즉 4가지 사고와 문화의 기술이 음악 생산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Finanscape**는 국경과 영토를 가로지르는 자본, 통화 시장, 증권 거래소 및 상품 투기의 흐름을 나타냅니다(Appadurai 1990: 7). 많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들이 해외 메이저 레이블과 협업하여 글로벌 배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글로벌 배급과 협업은 이수만의 '문화기술'이 제안한 것처럼 K-pop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이브는 2023년 미국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홀딩스, 2024년 LA 엔 뮤직 레이블 Exile Music을 인수해 K-pop, Hip-hop, 라틴 음악을 동일한 경영진 하에 두었습니다.

2023 IFPI 글로벌 뮤직 리포트(2024)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세계 7위의 음악 시장입니다. 2023 IFPI 글로벌 차트 톱 20에는 세븐틴(2위), 스트레이 키즈(3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7위), 뉴진스(8위), 아이브(12위), NCT 드림(15위) 등 6개의 K팝 가수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TOP 20 앨범 중 19장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는 한국이 실물 앨범 형식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톱 20에 오른 외국인 가수는 테일러 스위프트(6위)가 유일했습니다. K-pop이 전 세계 앨범 판매량에서 거둔

이러한 성공은 팬덤 경제의 부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는 올드미디어(old media)와 뉴미디어(new media)를 모두 포함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기 위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지가 중심이 되고 내러티브가 결합된 현실의 조각들에 대한 설명인 경향이 있습니다(Appadurai 1990: 9). K-pop과 한류의 발전은 국내(한국), 지역(아시아 전반) 및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디어스케이프에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와 범세계적 디지털 플랫폼은 K-pop 제품의 배포와 글로벌 K-pop 팬덤의 발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일반 관객을 위한 K-pop의 첫 만남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이 재미있는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탔고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만든 UCC를 통한 패러디가 급증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대영 신문 가디언스(The Guardian)가<sup>6)</sup> 선정한 톱 6,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The Sun)이<sup>7)</sup> 선정한 톱 10 등 5가지 패러디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영국 대중과 전 세계 관객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글로벌 팝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

6) 'Gangnam Style parodies: six more of the best', The Guardian, 19 October 2012, <http://www.guardian.co.uk/music/musicblog/2012/oct/19/gangnam-style-video-parodies-psy>.

7) 'Top 10 Gangnam Style parodies show our funny Psyde', The Sun, 24 October 2012, <https://www.thesun.co.uk/archives/news/1005666/top-10-gangnam-style-parodies-show-our-funny-psyde>.

2024년 8월에는 K-pop에 대한 세 개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두 개는 전 세계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더 K-팝 익스피리언스(6부), BBC,<sup>8)</sup> 팝스타 아카데미: 캣스아이(8부), Netflix<sup>9)</sup> 8부, 애플TV+의 K-팝 아이돌(6부) 등입니다. K-pop 산업을 다룬 세 편의 시리즈가 모두 같은 달에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는 K-pop 시스템 생산이라는 주제가 글로벌 미디어의 인기 소재가 된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BBC 다큐멘터리 '메이드 인 코리아: 더 케이팝 익스피리언스(Made in Korea: The K-pop Experience)'는 영국과 한국의 협업으로 문앤백 미디어(Moon & Back Media), SM 엔터테인먼트(SM Entertainment), SM &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SM & Kakao Entertainment America)가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19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 영국 뮤지션 5명이 영국의 아우디 온을 통해 선발되어 보이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100일 동안 SM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의 코칭과 평가를 받으며 마치 2024년 마지막 분기에 공식 데뷔를 앞둔 K-pop 연습생처럼 훈련받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K-pop과 주류 영미 음악 산업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밴드 멤버는 매니징 레이블이 아닌 자신의 밴드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멘토는 격식을 차리고 엄격한 반면, 브리티시 매니저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느긋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은 TV 리얼리티 쇼의 영국식과 한국식 형식을 결합하여 이야기와 플롯을 제공합니다.

8) <https://www.bbc.co.uk/iplayer/episodes/m00223j7/made-in-korea-the-kpop-experience>.

9) <https://www.netflix.com/gb/title/81587828>.

**이데오스케이프(Ideoscape):** 아파두라이에게 이데오스케이프는 이미지들의 집합체이지만,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적이며, 종종 국가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 권력 또는 그 일부를 장악하려는 운동의 반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K-pop과 한류의 이데오스케이프는 한국의 국익에 의해 형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연성 권력 창출의 수단으로 홍보하고(Nye 2004), 브랜딩 프로젝트와 문화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국문화원(KCC UK)은 2012년부터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에 대한 한 학기 교육 프로그램인 'K-pop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CC UK의 경우 K-pop Academy는 K-pop을 촉매제로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플래그십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K-pop과 현대 한국의 '문화 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졸업생을 다수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국 KCC가 주관하는 K-pop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로는 'K-pop Night', 'K-pop Competition', 'K-pop Auditions'(YG와 JYP 주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K-pop 관련 프로그램들은 대중음악을 통한 한국의 문화외교가 영국 K-pop 팬들의 '팝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만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류에 대한 국가 문화 정책은 한류 이념 스케이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한국 정부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한국의 창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 3. 문화의 재영토화와 K-po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두라이의 이론(1990)은 K-pop과 한류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글로벌 팬 경제(global fan economy)의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Lull의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 이론(1995/2000)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음악 장르와 창조 산업의 문화적 이동성과 유동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Lull(1995/2000: 159)에 따르면, 재영토화는 두 가지 현상을 포함합니다. 첫째, 문화적 영역(즉, 삶의 방식, 인공물, 상징 및 맥락)의 토대는 "새로운 해석과 이해에 모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는 문화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개인적 공동체의 창조적 사용, 기술 및 대중 매체에 의해 재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영토화 이론은 아파두라이의 '영역(scapes)'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더 나아가 Benne(2001:94)은 문화적 재영토화의 과정은 "문화적 형태를 그러한 생산물이 전유되는 지역적 맥락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단성 있는 자원으로 재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힙합과 랩, R&B, 록, 일렉트로닉 댄스, 팝, 레게, 디스코를 포함한 다양한 대중음악 형식에 대한 전유의 과정은 장르의 관련 문화적, 음악적, 언어적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수용하고 적응하는 전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pop의 특징으로 알려진 것, 즉 독특한 노래 구조; 글로벌 어필을 위한 후크에 집중, 코드 진행; 구성, 조정, 레코딩에서의 아쿠스틱한 처리,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가사 등을 통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트 산업의 지무쇼 시스템(Marx 2012 참조)의 논리를 일부 차용할 수 있지만,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판매 전략에 따라 이를 조정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수만 작가의 '문화기술'과 '신문화기술' 방법론은 비즈니스 수행과 연계된 문화 영역화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4. 결론

이 논문에서 저는 K-pop과 한류가 어떻게 범세계적 맥락과 영향력 하에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포지셔닝이 글로벌 팬 경제에 의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 파이낸스케이프(financescape),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 이데오스케이프(ideoscape)로 나뉜 아파두라이의 다섯 가지 '스케이프'는 K-pop과 한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입니다. 이 다섯 개의 '스케이프'는 차례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 작용합니다. Lull의 '문화적 재영토화' 이론은 문화영역의 토대가 새로운 해석과 이해에 열려 있는 반면, 문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두 가지 연결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K-pop이 어떻게 pop의 세계주의와 문화 외교를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작곡가, 프로듀서, 'K-pop 연습생'으로서 K-pop에 대한 영국의 참여는 K-pop의 문화적 재영토화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영역'만으로는 흥 교수가

제안한 '문화적 세계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를 촉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문화영토는 유동적이고 상상적이며 논쟁적인 창조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논문

## 문화콘텐츠에 재현된 대치동의 의미 체계 - 〈일타 스캔들〉, 〈졸업〉, 〈대치동 스캔들〉을 중심으로

박미희<sup>1)</sup>

### [국문초록]

이 글은 문화콘텐츠에서 재현되는 대치동의 의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파두라이의 공간 개념을 차용하여 지역성, 정체성, 장소성으로 의미 속성을 분류하고 대치동의 상징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재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 〈일타 스캔들〉과 〈졸업〉, 영화 〈대치동 스캔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기준을 토대로 파악한 대치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성으로 재현된 대치동은 성공의 의미를 드러낸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도입부에서는 서사의 중심 공간인 대치동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된다. 그러나 강사 개인의 경험 차원에서 형성된 정체성으로 재현하는 대치동은 지역성과 큰 차이를 갖는다. 주인공들에게는 대치동은 원하던 꿈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공간으로 재현된다. 성공이라는 지역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결핍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치동의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는다. 주인공들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각자의 결핍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

---

1) 단국대학교 강사

는 장소성으로 의미를 변화시킨다. 여러 사건을 통해 포함의 공간으로 재  
현된 대치동은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주제어 : 대치동, 의미 체계, 〈일타 스캔들〉, 〈졸업〉, 〈대치동 스캔들〉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강남 학원가로 대표되는 대치동이라는 공간이 드라마와 영화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짐멜의 이론에 따르면 도시나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구성원 간의 응집력이 저하되고 자율성이 증가하여 대도시의 구성원들은 균일한 성질을 갖기 어렵기<sup>2)</sup> 때문에 특정 도시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도시의 명칭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 성질은 물론 사회적인 담론으로 공간의 의미를 형성하여 지역 명칭은 곧 상징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강남과 대치동이라는 지역 명칭이 갖는 의미는 성공과 부를 담보하는 가장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공간은 시대나 문화 흐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생성하며 변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콘텐츠에서 보여주는 공간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갖는 의미 체계로 작동하여 기획 의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문화콘텐츠에서 재현되는 공간의 의미 체계가 기획 의도를 반영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대치동이라는 지역 명칭이 대한민국 사교육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대치동이 획득한 사교육의 대표성은 강남 8학군에서 비롯된다. 학군은 중산층 거주지, 명문 학교, 유명 학원가가 위치한 지역<sup>3)</sup>으로 인식되는데 강북 지역의 주요 명문 고교가 강남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학군 선호 현상이 강남으로

2) 김희경, 「담론화된 도시공간과 정주자의 일상적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쪽 재인용.

3) 위의 논문, 161쪽.

전이<sup>4)</sup>되었다. 그 결과 강남은 학력 자본의 재생산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별 아파트 가격의 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sup>5)</sup> 공간의 특수성을 형성하였다. 즉, 강남은 아파트를 기반으로 부를 성취한 삶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상징성을 갖는다. 강남에서도 대치동은 명문 학교와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선호 학군의 기준을 만족시키며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결국 강남은 부의 성취나 이를 만족시키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의 거주 공간으로, 대치동은 이러한 거주 공간에 정착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치동이 학원가로 대표되고 경쟁의 공간으로 상징화된 데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크다. 실제로 강남권역에 대한 보도 뉴스 어휘들은 긍정적 기호로 ‘사교육 1번지, 8학군, 공교육 인기학군, 우수 교육 여건, 학군 프리미엄’ 등의 지역성을 나타냈고 ‘부유층, 교육열 높은 엄마, 상류층, 강남 부자’ 등의 거주민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sup>6)</sup> 뉴스에서 선택한 어휘들은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해 특정 이미지를 고착화시켜 공간의 의미를 견고히 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의미를 구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대치동 학원가는 인간적인 일상은 배제되고 경쟁만이 강조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콘텐츠에서 보여주는 공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문화콘텐츠에서 설정한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기획 의도를 반영해 향유자에게 특정 의미

4) 백일순 외, 「도시 구성체로서의 학군」, 『공간과 사회』, 제33권 2호(통권 84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23, 151쪽.

5) 최은영, 「강남의 형성과 사회·경제 장벽의 강화」, 『대한지리학회지 학술대회논문집』, 대한지리학회, 2005, 64쪽.

6) 김남일·백선기, 「언론매체의 ‘강남권역’ 신화형성과 이데올로기」, 『언론과 사회』, 16권 2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8, 21쪽.

로 전달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 것이다.

강남 대치동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도시 공간 차원에서 논의되며 강남 개발의 역사성, 담론의 형성이나 사교육 중심의 특성을 다룬 것이 대다수이다.<sup>7)</sup> 그러나 이 글은 특정 공간의 의미는 미디어 재현과 관련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콘텐츠에서 설정한 공간이 기획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떤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콘텐츠에서 재현되는 공간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며 지향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문화콘텐츠에서 구축한 공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 1) 분석 대상

---

7) 이와 관련한 대표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남일·백선기, 「언론매체의 ‘강남권역’ 신화형성과 이데올로기」, 『언론과 사회』, 16권 2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8, 2-36쪽.

김희경, 「담론화된 도시공간과 정주자의 일상적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배균·장진범,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287-306쪽.

백일순 외, 「도시 구성체로서의 학군」, 『공간과 사회』, 제33권 제2호(통권 84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23, 132-183쪽.

정수열, 「강남의 경계 긋기」,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2018, 173-191쪽.

지주형,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307-141쪽.

최연희, 「강남 러시, 혹은 강남 닳기의 몇 가지 풍경」, 『중등우리교육』, 166, 우리교육, 2003, 78-79쪽.

최은영, 「강남의 형성과 사회·경제 장벽의 강화」, 『대한지리학회지 학술대회논문집』, 대한지리학회, 2005, 63-64쪽.

이 글에서는 드라마 〈일타 스캔들〉과 〈졸업〉, 영화 〈대치동 스캔들〉을 중심으로 대치동의 의미 체계를 알아볼 것이다. 이 세 작품은 모두 대치동 학원가를 배경으로 하며 주인공인 성공한 강사가 스캔들에 휘말리며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 구조를 갖는다.

〈일타 스캔들〉은 강남 녹은로 학원가라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기획 의도<sup>8)</sup>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물론 “강남 8학군 아이들”을 호명하여 대치동의 공간 특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졸업〉은 인물 소개<sup>9)</sup>에 따르면 여주인공인 서혜진은 “강남 대치동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남주인공인 이준호는 “대치동 키드”로 지칭하며 대치동이 배경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치동 스캔들〉은 제목에서 노골적으로 대치동이라는 공간을 드러낸다. 대치동은 학원생들에게는 성공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인공들이 학원 강사로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주인공들에게는 학원 강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패의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타 스캔들〉, 〈졸업〉, 〈대치동 스캔들〉은 주인공이 경제적 성취가 아닌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통해 삶을 완성하는 인물로 그려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갑고 치열한 경쟁이 강조되는 대치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치유나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대치동이라는 공간 설정을 통

---

8) 〈일타 스캔들〉 공식 홈페이지, <https://tvn.cjenm.com/ko/crashcourseinromance>, (검색일자: 2024년 12월 1일)

9) 〈졸업〉 공식 홈페이지, <https://tvn.cjenm.com/ko/The-MidnightRomance>, (검색일자: 2024년 12월 1일)

해 주인공의 결핍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인식을 전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치동 학원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통해 주제 의식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의 의미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세 작품 모두 주인공이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일타 스캔들>과 <졸업>은 강사의 연애 문제로, <대치동 스캔들>은 학원 강사와 교사의 만남이 스캔들을 만든다. <일타 스캔들>과 <졸업>은 표면적으로 스캔들의 원인이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타 스캔들>은 학부모와의 불륜으로 오해되어 스캔들이 촉발되지만 이 스캔들의 중심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문제가 아니다. 불륜으로 특정 학원생이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일타 스캔들>에서 주목하는 스캔들은 과열된 사교육을 강조하는 소재이다. <졸업>은 강사 사이의 연애를 스캔들로 만들어 학원 간, 강사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대치동 학원들의 경쟁과 강사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소재로 활용되며 학원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대치동 스캔들>은 <일타 스캔들>, <졸업>과 또 다른 성격의 스캔들을 보여준다. 학원 강사와 교사의 만남이라는 사진이 유포되면서 학교 시험 문제의 유출이라는 거짓이 만들어진다. 이 거짓은 주인공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만 거짓에 의해 끝나버린 친구와의 우정을 정리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각 작품에서 중심 사건을 견인하는 스캔들은 학원이라는 동일한 배경에서도 그 성격이 다르다. 스캔들은 각 작품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기획 의도와 연관되어 대치동의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 타당성을 갖는다. 이에 중심 소재로 학원가의 스캔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 2) 분석 방법<sup>10)</sup>

일반적으로 인문학과 사회학에서 장소(place)의 개념은 사회적 실천의 산물로 사람들이 그 형상과 의미를 결정하는 범위에서 인식되어 단순한 물리적·지리적 위치(location)에 관한 문제를 넘어선다.<sup>11)</sup> 특정한 공간(space)에 부여되는 의미는 물리적·지리적 위치에서 겪은 개인의 경험을 반영한다. 따라서 공간은 개인에 경험에 따라 다채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장소의 개념을 획득한다. 투안과 허쉬는 공간과 장소의 구분된 개념화를 시도하였는데 장소는 인간의 경험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투안에 따르면 공간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으로 장소는 정지하는 곳으로 구분하였고, 허쉬는 공간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으로 장소는 현실성을 보여주는 곳으로 개념화하였다. 투안과 허쉬의 개념 모두 공간과 장소는 물리적·지리적 위치에서 실제 개인을 둘러싼 경험과 현실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갖는다. 결국 장소와 공간의 개념

---

10) 분석 방법에서 언급하는 장소, 공간, 경관 등의 개념은 다음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박형진·김문덕, 「실존적 개념의 장소성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 56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6, 92-101쪽.

서동진·김주연, 「장소정체성을 위한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 비교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3호 통권 80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2, 364-373쪽.

장근수 외, 「아울 아파두라이의 scape 개념을 통한 문화의 세계화와 현대건축의 상관관계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3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2003, 465-468쪽.

정현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회, 2013, 107-141쪽.

11) 정현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회, 2013, 112쪽.

은 변화한다는 속성을 본질로 인간의 경험에 따라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에 방점을 둔다.

아파두라이가 제시한 경관(scape)의 개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아파두라이는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의 경계가 탈영역화되는 것을 개념화하였는데 그 결과를 지역성, 정체성, 장소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장소성을 문화적 분절성과 관련하여 경관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문화 흐름을 개인, 기술, 자본, 미디어, 아이디어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앞서 투안과 허쉬가 제안한 공간과 장소의 변화한다는 속성은 물론 그 변화 기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치동의 의미 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파두라이의 개념을 차용하여 지역성, 정체성, 장소성을 기준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아파두라이는 문화의 세계화 흐름을 도시 경험적 차원에서 지역성, 정체성, 장소성으로 구분하고 공간이나 구조를 강조하기보다 미디어 메시지와 실제적인 움직임, 흐름에 초점을 둔다.<sup>12)</sup>

즉, 앞서 언급한 경관은 문화적인 흐름으로 접근한다. 분석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1〉 공간 의미 개념

	의미	특성
<b>지역성</b>	물리적·지리적 기반의 위치	고정성
<b>정체성</b>	주인공의 경험이 발생하는 공간	유동성
<b>장소성</b>	경험을 토대로 결과적인 차원의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	새로운 가능성

12) 장근수 외, 「아윤 아파두라이의 scape 개념을 통한 문화의 세계화와 현대건축의 상관관계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3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2003, 466쪽.

우선 지역성으로 대치동의 물리적·지리적 위치의 공간 의미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대치동의 상징적인 의미가 어떻게 재현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화를 드러내는 지표로써 대치동이 주인공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담론으로 제시되는 대치동이 어떤 의미의 장소성을 형성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사례를 통해 대치동의 의미가 공간의 일상에서 주체의 정체성 획득으로 담론을 형성<sup>13)</sup>하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 스캔들을 통한 강남 대치동의 일반적 인식 재현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일타 스캔들〉, 〈졸업〉, 〈대치동 스캔들〉에 나타나는 강남 대치동의 일반적 인식을 그려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드라마 〈일타 스캔들〉

〈일타 스캔들〉은 반찬가게 사장인 남행선(전도연 분)과 수학 일타강사인 최치열(정경호 분)의 로맨스를 주축으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배경이 되는 주요 공간은 학원이다. 드라마의 시작은 도로를 짝 채운 자동차들을 보여주며 녹은로 학원가의 하원 상황을 보여준다.

---

13) 김희경, 앞의 논문, 15쪽.

택시 기사: 아, 빨리 좀 갑시다! 아나, 이 시간엔 여길 지나가면 안 되는데.(밑줄, 굵은 글씨 인용자, 이하 동일)

(차 안 계기판 시계 9시 59분에서 10시로 바뀌며)

라디오 리포터: 이 시간 역삼동, 삼성동, 도곡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 핸들을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은로 학원가 학생들 하원 여파로 주변 도로에 정차된 학부모님들 차들이 비상등 쇼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구간 교통 정체 예상되니 우회하시길 바랍니다.

-1화

녹은로는 학원 하원으로 교통 정체를 불러올 만큼 학원이 밀집한 공간이다. 이 장면은 사교육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공간을 재현하는 것은 물론 과열된 교육열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대치동 학원가의 의미를 교통 정체를 통해 재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행선의 내레이션을 통해 학원가의 구체적인 속성을 직접 설명하여 이 공간이 경쟁과 떨 수 없는 공간임을 강조한다.

남행선 내레이션: 여기는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인 강남의 모 학원가. 일타 강사 수업의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학생도 아닌 학부모가, 학부모가 아닌 학부모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 줄서기를 하는 웃픈 현상이 있는 현대판 맹모삼천지교의 현장.

(줄서기에서 새치기로 말다툼이 벌어지는 상황 후)

그렇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던가. 새벽같이 고동치는 나라. 닭 울기 전부터 고성인 오가는 나

라. 아침 댓바람부터 고단하고 고달프고 그래도 고진감래를  
믿으며 고삐를 늦출 새 없이 고생길을 달려 고소득, 고학력,  
고득점, 고위층을 향해 고고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지금 대  
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니던가.

-1화

이러한 경쟁의 공간에서 최치열은 고득점을 보장하는 강사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신뢰가 깊다. 그리고 그러한 보상으로 최치열은 매우 높은 연봉과 연예인급의 인기를 얻어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치열은 “스트레스에 의한 섭식 장애, 감정적 결핍, 공허함”(1화 최치열 대사 중)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우연히 남행선의 반찬가게에서 포장한 도시락이 유일하게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최치열과 남행선의 동생 재우, 딸 해이 사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난감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남행선과 최치열은 해이의 과외와 도시락 배달을 거래하게 된다.

해이의 비밀 과외는 소수 정예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올케어반 학부모들에게 발각되면서 스캔들에 휩싸이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최치열에게 항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용이다. 그리고 이 비용과 관련하여 강사와 학부모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며 ‘교육열 높은 엄마’, ‘부유층’ 등의 일반적인 인식을 그대로 재현한다.

수아 모: 그럼 자료는요? 아니, 우리가 얼마를 내고 올케어반을  
듣는 건데.

최치열: 올케어 자료가 아니라 제 자료죠. 모든 권리는 저한테 있고요.

학부모: 뭐, 그럼 자료는 그렇다 치고. 안타까운 학생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개인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청하셨다면 서요. 과외해 준다고.

학부모: 근데 최치열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수아 모: 최치열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아우, 나 안 되겠어. 나 원장하고 담판지어야겠어.

-9화

비밀 과외로 인하여 최치열과 남행선의 불륜이 제기되며 드라마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둘의 불륜은 윤리적 문제로 다루어지기보다 특정 학생이 무료로 과외를 받는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일타 스캔들>에서 다루는 스캔들은 연애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강남 학원가의 과도한 교육열에 집중한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동희: 진짜 안 하실 거 아니죠? 올케어반. 기 싸움이죠?

최치열: 몰라, 나도. 근데 자꾸 화가 나네, 진심으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기껏해야 과외잖아. 학생 한 명.

지동희:  쌤도 아시잖아요. 이 동네 습성.

최치열: 알지, 그래서 더 싫어. 일방적이고 이기적이고. 지금이라도 내가 자기 애 과외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돈 싸들고 달려들걸?

지동희: 당연하죠. 그게 이 상황의 본질이에요. 자기 자식들한테 이익이 되면 불법도 강행하지만 남의 자식이 특혜받는 건 방법을 불사하고 막겠다.

-9화

수아 모의 대사나 지동희와 최치열의 대화는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통해 강남이 갖는 부유한 이미지를 재현한다. 그리고 인기 강사에게 수업을 듣게 하려는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타 스캔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 교육을 위하여 뭐든 할 수 있는 높은 교육열의 학부모, 다른 학생과 다른 관리를 받고자 하는 과도한 경쟁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일반적 인식을 전제로 최치열의 변화 과정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 2) 드라마 <졸업>

<졸업>은 고등학교 내신 국어 만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서혜진(정려원 분)과 기적의 1등급으로 강남 대치동에서 이름을 날리게 해 준 제자 이준호(위하준 분)와의 연애가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이준호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전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혜진과 나누는 대화는 대치동 학원가의 강사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준다.

이준호: 일은 지루하지 않아요?

서혜진: 여기 대한민국이란다. 진짜 전쟁통에도 입시 전쟁을 치렀던 나라. 지루하다니. 무시하면 섭하지.

이준호: 그럼 업무 만족도는?

서혜진: 환상 그 자체?

이준호: 정말?

서혜진: 응, 정말. 최고야.

이준호: 양심에 손을 얹고?

서혜진: 너 사원증 좀 줘봐.

이준호: 갑자기 사원증은 왜요?

서혜진: 얼른. 니들 신입사원 연수 끝나면 그런다며. 몸에 파란 피가 흐른다고.

이준호: 뭐, 요즘도 그런가.

서혜진: 피 색깔 바꾼 너희 과장님보다 내가 연봉이 더 높을걸? 최소 차장. 아니다. 팀장도 내 발 아래.

-1화

서혜진의 말에 따르면 학원 강사는 전쟁 중에도 입시를 치를 만큼 시험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학원은 안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연봉을 보장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서혜진의 결핍과 대치되는 공간으로 완벽성을 보여주는 공간 의미를 갖는다.

강사로의 전직에 반대하는 부모와 서혜진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이준호는 강사가 되어 동료 교사가 된 서혜진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결국 서혜진과 이준호의 연애가 시작되면서 스캔들에 휘말린다. 그러나 이 스캔들은 <일타 스캔들>과 달리 학생 관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졸업>에서는 동료 강사들 사이의 갈등과 학원들 사이의 경쟁을 강조하는 소재가 된다.

윤지석: 교재를 새로 만드는 거야?

서혜진: 예. 수능 특강에 쓸 거 좀 낡은 거 같아 가지고.

윤지석: 낡았나? 저번 방학 전에 새로 인쇄했던 것 같은데

서혜진: 아..

윤지석: 내가 별걸 다 기억하지?

서혜진: 그러네요. 전화드리려고.

윤지석: 준호는? 준호는 어디 가고 혼자 있어? 밤에 여기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아?

서혜진: 혼자 있는 거는 익숙해서 괜찮아요. 준호는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윤지석: 어. 나 되게 놀랐어. 처음에는 부원장이 독립할 거라 그래서 꽤 놀랐는데. 서혜진이랑 이준호 얘기 듣고는 그거의 한만 배쯤 놀란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기절을 안 한 게 용하지. 사실인가 보네? 우승희 부원장이 혜진 팀장 워낙 미워했잖아. 혹시나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어.

서혜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세요.

윤지석: 무슨 편견?

서혜진: 준호가 들어와서 곧장 광고 자리 따낸 거나 저랑 공동 강의한 거. 이번에 수업 새로 오픈한 거. 저희 사적인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윤지석: 이 와중에 침착하네.

서혜진: 제 입장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팀장님이랑 저

이 학원 개국공신이나 마찬가지로요. 저랑 같은 상황이었으면 팀장님..

윤지석: 말 참 잘한다. 늘 느끼지만 말 참 잘해. 넘어갈 뻔 했어.

진짜로 학원 강사들한테 애사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할 뻔 했잖아.

-13화

서혜진과 이준호의 연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윤지석이 서혜진과 나누는 대화에서 대치동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학생들 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부원장이 거짓을 만들어서라도 서혜진을 견제할 수 있다거나 대표 강사와 신입 강사의 공동 강의로 다른 강사들의 부러움을 산다거나, 학원 강사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대치동 학원가의 치열한 경쟁을 설명한다. 팀장을 맡고 고소득의 강사료를 받는 서혜진이나 윤지석은 외부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치동 학원가가 갖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지석이 동료 강사들에게 서혜진과 이준호의 연애를 이유로 학원 운영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스캔들은 더욱 확대된다. 민희주와 이준호의 대화를 통해 강사들의 치열한 경쟁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윤지석: 어제 제가 문자 보내드린 그대로예요. 제가 문제를 삼는 건 그동안 학원의 주요 자원이 특정한 사람에게 쏠리고 있었다는 거.

민희주: 어디 가서 좀 기다려요. 모여서 무슨 얘기들 했는지 내가 말해줄게.

이준호: 제가 해명할게요.

민희주: 해명? 설명? 그런 걸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준호: 다들 배울 만큼 배우셨고 애들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이성적으로 설명드리면.

민희주: 아이고, 이준호 선생님아. 배울 만큼 배우시고 애들 가르치시는 분들인 거 그게 문제인데.

이준호: 그게 무슨.

민희주: 다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진다고요.

그리고 혜진 팀장 무너지길 기다렸던 사람들이 학원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데.

-14화

서혜진과 이준호의 연애는 서혜진을 경계하던 부원장은 물론 오랜 동료였던 윤지석까지 스캔들을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시발점이 된다. 윤지석은 학원 내에서 입지가 커지는 이준호를 공격하고 학원 밖에서는 경쟁 학원들이 서혜진의 연애를 윤리적으로 비난한다. 이러한 스캔들은 결국 서혜진이 만들어놓은 명성을 무너뜨리고 이준호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학원 강사들에게도 학원생들과 다를 바 없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확인시킨다.

### 3) 영화 <대치동 스캔들>

영화 <대치동 스캔들>은 학원 강사 김윤임(안소희 분) 사실과 무관한 소문에 휩싸이는데 영화 시작은 누군지 모를 학부모가 김윤임과 백기행의 사진을 단독방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여 학원 정보를 나누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대치동 학원에서 학부모 사이에서 공유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부모1: 작년 기말에는 연철수 학원 적중률이 쥔 좋았네.

학부모2: 미다스나 혁신은 숙제만 죽어라 내주지 애들 관리가 안 돼.

학부모3: 연철수 국어 김윤희라는 강사 스타일 어때요?

학부모2: 윤희 아니고 윤임. 이름이 어려워. 이 사람. 이름만큼 무섭고 박세고.

학부모4: 이 쌤 약간 재수없고 싸가지가 없어요.

학부모2: 애랑 학부모 상담하다 보면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학부모1: 그래도 연철수 다니는 언니 딸은 작년에 국어 다 맞아 왔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대치동의 분위기를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김윤임은 스캔들이 발생하기 전부터 집으로 찾아온 백기행에게 경고한다.

백기행: 아니, 요즘 애들은 학원에서 그런 얘기까지 해? 학교 선생님이 어간 어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김윤임: 그게 아니라 니가 굳이 꼬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 봉순이 팔고 다녔잖아. 너 어떻게 알았냐, 나 학원 다니는 거.

백기행: 대치동 분위기 누구보다 잘 알텐데, 왜 이래.

김윤임: 그럼, 너야말로. 대치동 분위기 뻘히 알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학교 교사가 강사랑 같이 있는 거 보이면 좋을 게 뭐 있다고.

대치동 학원에서 학부모의 권력은 막강하다. 학교 선생은 물론이고 학원 강사의 모든 것에 간섭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특히 김윤임을 따르는 학원생 혜린의 엄마는 학원 스케줄의 변경을 요구하고 학교 선생의 압수 수색도 진행한다. 엄마의 막무가내인 행동을 혜린도 잘 알고 있지만 엄마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다.

혜린: 의사처럼 안 보이죠?

김윤임: 응?

혜린: 저도 알아요. 학원이나 학교 쌤들이 엄마보고 진상이라고 하는 거. 엄마는 저한테보다 선생님들한테 관심이 더 많거든요. 대학 어디 나왔나, 집은 어디에 있나, 차는 뭐 타고 다니나. 특히 학원 선생님들한테 집요하죠. 이 동네 학원 강사들은 학력이 곧 실력이라고.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 한 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된다. 결국 김윤임은 혜린의 엄마가 맘카페에 올린 사진으로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고 학원을 그만두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장면들은 <일타 스캔들>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자기

자식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불사하는 학부모의 극단적인 모습을 재현한다. <대치동 스캔들>에서는 대치동 학원가의 학부모에게 구축된 부정적인 의미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 4. 대치동 재현의 의미 체계

##### 1) 성공을 보여주는 지역성

대치동이 구축한 성공의 이미지는 분석 사례에서도 적용되는 지역성이다. 학원가는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쟁하는 지역으로 인식된다. 학원생에게 대치동은 미래를 위한 공간이라면 강사에게는 현재의 위치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일타 스캔들>의 최치열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고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대출에 허덕이는 친구들과 다르게 펜트하우스에서 살며 성공을 이룬 인물로 재현된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식권을 사는 것도 빠듯했던 최치열은 대치동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친구들과의 계급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학원 회식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 동기들과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보여준다.

남자2: 근 십 년간 애 얼굴 본 거 우리가 유일할걸.

최치열: 야, 영석아. 어머니 상 때 못 가 봐서 미안하다. 방학이라 수업이 풀이라서.

남자1: 아니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해? 앉아, 간만에 한

잔 하자.

남자2: 그렇게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실패야. 아무래도 상투 잡은 거 같아.

전종렬: 아이, 그거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 아니야? 너 결혼하려고 산 거라며?

남자2: 겸사겸사지, 인마. 잔금 넣자마가 프리포즈했는데 날짜다가올수록 답답하다, 뭐가. 어, 미안. 너무 우리 얘기만 했나? 치열이 넌 뭐 결혼 계획은 없냐?

최치열: 난 뭐. 일이 바빠 가지고 아직.

남자1: 애가 뭣하러 결혼을 하나? 그 정도 별면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야, 내가 저번에 기사에서 봤는데. 너 뭐, 연봉이 100억 막 그렇다며.

남자2: 진짜냐?

최치열: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되지.

남자2: 아이씨, 대박.

남자1: 야, 진짜 성공했다. 야. 예전에 애 없이 살았을 때 그때는 어깨도 좁아 보였는데. 겁나 넓어졌어. 어깨도. 이래서 사람은 성공을 해야 돼, 안 그러냐?

전종렬: 씨, 똑같구만,

남자2: 야, 너 건물도 여러 개라며? 지금 사는 데 어딘데?

최치열: 아, 학원 때문에 여기 근처 에메랄드.

남자2: 너 혹시 펜트하우스냐?

남자1: 아니, 애가 옛날엔 참 순진하니 인간적이었는데 완전 재수 됐다, 저거. 그냥 고깃값이나 내 주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남자2: 지금 가면 안 되지. 소고기 더 먹어야지. 이런 물주 잡기  
힘들다, 응? 더 시켜. 더. 육회비빔밥 하나씩 때려.

최치열: 역시 소모적이야. 저런 모임은. 술 마시고 건강 버려.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 버려.

-3화

동기들은 최치열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대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시기와 질투를 한다. 동기들은 최치열의 성공에 있어 수반된 그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축적한 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이다. 연봉 액수, 집과 같이 물질적인 면으로 성공을 평가한다. 그리고 최치열의 성공에는 그들이 이룬 일상적인 결혼이나 친구들의 만남 등이 배제된 것을 당연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치동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린 결과로 보상받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지역성은 일상은 사라지고 물질적인 풍요로만 평가되는 성공만을 의미한다.

최치열의 성공에 대한 부각은 최치열이 갖는 결핍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풍부해지는 인생을 보여주고자 하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졸업〉에서는 학원 지역의 서열화를 언급하면서 대치동이 학원 강사들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북에 위치한 학원에서 전교 1등을 배출하던 남침미는 대치동 학원으로 이직하며 조바심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야망을 보인다. 충분한 역량과 경력을 갖고 있지만 강남 대치동이라는 완벽

한 공간의 지역성으로 그녀는 열등감을 느낀다.

남청미: 제가 이 동네는 처음이라 조언이라든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상담 실장님들이 경험도 많으시고 정보도 많으시다고.

상담실장: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청미: 인터넷 카페요.

상담실장: 그래요? 무슨 조언을 원하실까?

남청미: 솔직히 제가 좀 불리한 입지거든요. 전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이 동네 경력자도 아니고.

상담실장: 그래도 대단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3화

특히 학원 지역의 서열화는 서혜진과 남청미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남청미는 강북의 학원에서 3년 동안 전교 1등을 배출한 베테랑임에도 서혜진에게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결국 대치동이라는 공간의 폐쇄성과 다른 지역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내며 대치동 학원가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남청미: 표상섭. 찬영고 오기 전 국사봉고등학교에서 4년 있었던 교사예요. 제가 3년 동안 그 학교 전교 1등을 배출했구요. 표상섭 선생이 찬영고로 온 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찬영고 반 무지 열고 싶었지만 참았죠.

서혜진: 물론 학교 선생님 성향 잘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남청미: 선생님, 저는 대치동이 처음이에요. 이 근방 학교들도 모두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동아줄이었는데요.

-4화

이러한 학원 지역의 서열화에 대한 인식은 남청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원장의 독립과 학원에 위기가 찾아오자 강사들은 자신의 거처에 대해 걱정을 한다. 그 과정에서 강사들은 서로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역 서열을 전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사2: 저는 목동에서 티오 났다 그래서 그리로 갈까 그러는데

강사1: 목동? 목동 좋지. 근데 우승희가 아니고?

강사2: 일단 여기 저기 발 걸쳐 보려고요. 팀장님은요?

강사1: 난 일단 원장님이랑 면담 먼저 하고. 명색이 팀장인데 단박에 튀기가 좀 그렇다.

-15화

〈졸업〉에서 재현하는 대치동의 지역성은 강사들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혜진과 이준호의 스캔들 역시 학부모들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강사들의 관계성에서 다루어진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군 가운데 쟁쟁한 실력을 바탕으로 입성하고자 하는 지역성으로 대치동이 재현된 것이다.

〈대치동 스캔들〉에서는 김윤임이 사는 동네와 대비하여 대치동의 지역성을 드러낸다. 김윤임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도 대학 때에 자

취하던 집에서 그대로 거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기행도 미치오도 무작정 김윤임을 찾아올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치오는 김윤임의 동네는 학원 근처와 비교하여 집값이 저렴한 동네로 인식하고 학원이 있는 대치동은 부자 동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치오: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학교 끝나고 첼시 호프  
갔다가 맨날 술 먹고 너네집 갔었잖아.

김윤임: 언제 적 얘기를 하고 있어.

미치오: 이제 이사 좀 가. 학원 근처로. 부자 동네.

김윤임: 돈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니라니까.

〈대치동 스캔들〉은 김윤임의 대학 시절에 초점을 둔 영화이다. 현재 대치동 학원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미치오와 백기행으로 대학 시절을 떠올린다. 가장 친했던 친구의 거짓말로 우정이 깨졌던 상황은 학원에서도 거짓 소문에 의해 학원을 그만두는 상황과 병치 구조를 보인다. 그 거짓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김윤임이 갖는 실제 능력이다. 빼앗긴 소설이나 학원에서 보여주는 강사 역량은 모두 김윤임의 진실과 닿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작가는 물론 강사로서 김윤임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치동의 지역성은 김윤임의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일타 스캔들〉, 〈졸업〉, 〈대치동 스캔들〉에서 재현된 대치동의 지역성은 성공을 의미한다. 이는 외부적으로 인식되는 의미 체계이다. 실상은 잘 알 수 없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대치동의 지역성은 〈대치동 스캔들〉에서 강사들을 소개하는 원

장의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욕망의 집결지라 부른다’는 대사처럼 성공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 2) 스타 강사의 결핍을 보여주는 정체성

표면적으로 최치열, 서혜진, 김윤임은 대치동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학원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받으며 학원 강사로 자리를 잡았다. 학원가 서열을 고려할 때에도 대치동이라는 상징성은 성공과 닿아 있다. 그러나 대치동의 지역성에서 벗어나 개인의 경험을 고려한 공간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세 인물 모두 대치동의 지역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졸업>의 남창미와 다르게 최치열, 서혜진, 김윤임은 자의적이기보다 어쩔 수 없이 대치동 학원가를 선택한다. 이러한 인물의 내력담은 드라마와 영화의 기획 의도는 물론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일타 강사로 100억이 넘는 연봉과 여러 건물을 소유한 최치열이 대치동으로 오게 된 이유는 가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유에서이다. 앞서 제시한 대학 동기들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치열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행선의 엄마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늘 끼니를 이어갔다. 행선의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최치열에게 밥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임용고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냥 아버지 소원이셔서(2화 최치열 대사 중)” 선생님이 되려던 최치열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다. 아버지가 파지를 줍다가 오토바이랑 부딪쳤고 내장 파열이 의심되었지만 뺨돈을 쓰지

않겠다며 MRI를 찍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최치열은 임용 고시를 그만 둔다. 결국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학원 강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치열에게 대치동은 임용 고시를 포기하고 선택한 공간으로 결핍을 의미한다.

서혜진 역시 대치동 학원가는 성공을 위하여 선택한 공간이 아니다. 법학과를 다니던 중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학원 강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이 과정에서 서혜진은 남들과 다른 인생 과정을 거치며 또래들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 서혜진이 느끼는 이러한 결핍은 8화에서 소영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서혜진에게 대치동은 “툽니바퀴가 조금 어긋난 사람(8화 서혜진의 대사 중)”이 있는 공간이고 “주어진 숙제를 성실하게 해치우면서 살긴 했는데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해 보고 억울(8화 서혜진의 대사 중)”한 시간을 보낸 공간이다. 앞서 제시한 대화에서는 직업은 물론 그에 대한 보상까지 만족하는 모습을 이준호에게 보였지만 실제로 대치동은 “보통 사람들이랑 이 시곗바늘이 안 맞지 않냐(8화 서혜진의 대사 중)”며 일상이 사라진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러한 대치동의 정체성은 원장과의 대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혜진: 네. 감사해서 그랬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셨으니까. 근데 저 그거 공짜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동생 학비? 아버지 병원비? 그거 다 가불해 주신 거지. 뭐 하나 그냥 던져주신 거 없었어요. 아니, 왜, 적선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김현탁: 저, 내, 내가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했나 본데.

서혜진: 때때로 원장님께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관

## 계다 싶었어요.

-6화

결국 서혜진에게 대치동은 경제적 곤란으로 선택된 공간이며 자신이 원하던 꿈을 포기하고 또래들과 다른 일상을 가져온 결핍의 의미를 갖는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김윤임에게도 대치동은 지역성이 의미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동료 강사인 은동화와의 대화를 보면 김윤임은 최치열, 서혜진과는 다르게 본인이 대치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은동화: 김쌤은 대치동에 왜 들어오셨어요?

김윤임: 네?

은동화: 흔히들 대치동을 욕망의 집결지라고 하잖아요. 원장님은 자꾸 애들하고 학부모의 욕망에만 집중하는데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도 대개 중요하거든요. 뭐, 한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최쌤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윤쌤은 학교 선생님하려다 망해서. 근데 김쌤은 대체 왜.

김윤임: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치동 들어왔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지만 김윤임의 대학 시절을 고려할 때 “유명해지고 싶어서(김윤임의 대사 중)” 대치동을 온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김윤임은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자신의 소설을 쓰고 싶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함께 한 가장 친한 친구 나은에게 소설 초고를 보여주는데 나은은 그 원고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소설가가 된

다. 그리고 김윤임이 필명으로 지은 김진향이라는 이름까지 뺏기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떨어진 김윤임은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유명해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임이 대치동을 선택한 이유는 지역성에서 의미하는 성공과 차이가 있다. 김윤임에게 대치동은 원래 꿈을 빼앗기고 우정과 사랑 모두를 잃게 된 후 선택한 공간으로 결핍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개인이 경험을 통해 구축되는 공간의 정체성에서 본다면 대치동은 결핍을 의미한다. 대학 동기들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는 최치열, 학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서혜진, 내신 1등급을 보장하는 김윤임 모두 표면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명성을 날리며 대치동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최치열,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전공을 포기한 서혜진, 이름을 빼앗긴 김윤임 모두에게 대치동은 결핍으로 인하여 선택된 공간이다. 주인공들에게 대치동이라는 공간은 지역성은 상실되고 꿈을 포기한 공간으로 재현되어 결핍이라는 정체성으로 의미를 구축한다.

### 3) 포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소성

대치동은 표면적으로 성공을 의미하는 지역성을 드러내지만 주인공들의 경험을 통해 꿈이 전락한 공간이다. 그리고 성공을 성취한 것으로 보이는 주인공들이 스캔들에 휘말리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성에 기반한 의미 체계는 드라마나 영화의 의도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대치동의 지

역성과 반대되는 정체성은 대치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평가되는 평면적인 구성원을 입체적이고 개인에 초점을 두게 한다. 그 결과 <일타 스캔들>, <졸업>, <대치동 스캔들>의 대치동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주인공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결핍이라는 정체성으로 대치동을 보여주지만 기획 의도와 관련하여 대치동은 결핍을 해소하는 포함의 장소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재현된다. 일반적인 인식을 토대로 지역성을 형성하여 드라마의 극적 상황을 강화하는 정체성을 결핍으로 재현한 것은 단순히 대치동의 양면성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기획 의도에 맞는 공간으로 담론 의미를 부여한다. 대치동은 성공의 공간이나 과도한 경쟁 공간이나 결핍의 공간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주인공들의 일상을 복구하는 포함의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재현한다. 결국 사랑과 우정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재현되며 주인공들이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대치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형성하며 포함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최치열은 고시원에서 먹던 행선 모의 따뜻한 밥을 남행선의 밥으로 대체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음식물을 넘기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지동희의 죽음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남행선: 웁지, 잘 먹네. 조금만 더 먹어요.

최치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먹히네.

남행선: 거봐, 뜨끈한 걸 먹어야 살 만해지는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가.

최치열: 살 만해져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사 받는 내내 ‘난 몰랐다’, ‘정말 몰랐다’ 이 말밖에 못 했는데  
남행선: 쌤이 그랬잖아요. 말하지 않는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오늘까지만 자책해요, 응?

-15화

이는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던 최치열의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동기들과의 만남에서 모든 것을 “소모적(3화 최치열의 대사 중)”으로 판단했던 최치열에게 대치동은 “살 만해져도”된다는 말을 전하는 남행선을 만나고 결핍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의미를 갖는다.

서혜진 역시 대치동에서 만난 이준호를 통해 결핍을 해소한다. 이준호는 서혜진의 가시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잃어버렸던 과거의 꿈과 목표를 찾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서혜진: 내 앞날이 너무 캄캄해.

이준호: 애들 복구할 수 있어요.

서혜진: 그런 게 아니라 학원. 그만둬도 될 것 같아. 너 대학가던 해, 김현탁 원장이 중고차 한 대 사줬거든?

이준호: 기억나요. 면허도 없는데 차부터 생겼었지.

서혜진: 고작 그 정도로 으쓱해지더라. 나 분명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가난한 애였는데 신분이 바뀐 것 같았어. 진짜 신나서 일했어. 나중에 돈을 왜 버는지 까먹었어.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서. 학비 벌려고 시작한 일인데 정작 내 공부는 뒤로 하고 낙제만 겨우 면했어. 근데 애들 와르르 잃고 나니까

새삼 보이는거야.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했었는지. 웃기지?

이준호: 안 웃겨요.

서혜진: 너는 너 때문에 내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했지.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되려 오래도록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막이 걷혔다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보이더라. 옛날부터 했어야 됐던 내 공부. 결과를 장담할 순 없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그때 뭔가 이뤄내면 그땐 네가 해 줘.  
빛나는 졸업장.

이준호: 달라는 거 다 줄게요.

서혜진: 고맙다.

이준호: 근데 뭐가 됐던 내 뒷바라지 받으면서 해요.

-16화

특히 동료 강사가 된 이준호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서혜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졸업>에서 재현하는 대치동이라는 공간 의미는 가장 다층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대치동은 결국 개인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관계성을 통해 포합의 의미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김윤임에게도 대치동은 포합의 장소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치열과 남행선, 서혜진과 이준호의 긍정적인 관계성을 형성한 포합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 김윤임은 원장과 강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결핍을 자각하게 된다.

김윤임: 저런 사진 찍혀서, 그런 글 올라와서 맘고생 심했겠다,  
너 그런 사람 아닌 거 아니까 걱정 마라. 그런 말씀부터 해주

실 줄 알았어요. 빈말이라도.

원장: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죠. 김쌤 곳곳하고 바른 사람이란 거 아는데.

김윤임: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수업까지 뺏다는데.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걱정 해주실 수 있잖아요.

원장: 선생님이야말로 나를 못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건데? 마음 속 이야기 안 하면 우리 일 오래 못 해요.

김윤임: 네, 원장님이랑 오래 일 못 하겠네요. 마침 오늘이 직전 보강이고 다음 주면 시험 끝나 휴강이니까 정규 과정 시작 전에 그만 두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치동에서 만난 관계성을 통해 상처를 치유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스스로 결핍을 해소하는 인물은 김윤임이다. 이것은 <대치동 스캔들>이 학원가 자체에 초점을 둔 <일타 스캔들>이나 <졸업>과 차별점을 갖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윤임이 대치동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은 과거 나온과의 경험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결국 지키지 못한 친구들과의 우정을 복귀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영화의 의도성은 혜린에게 사과를 받는 것으로 보여준다. 거짓된 소문이 진실로 받아들여진 과거와 다르게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엄마를 대신해 사과하는 혜린의 모습은 과거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혜린: 쌤,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었다면서요? 연철수 국어 다니

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학원에서 엄마들한테 전화 돌리는 중  
이래요.

김윤임: 선생님 걱정돼서 기다린 거야?

혜린: 죄송해요.

김윤임: 응?

혜린: 저희 엄마가 범인이었어요. 쌤이 담임이랑 병원에서 만나  
는 거 몰래 찍어올린 사람. 저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떻게든  
말렸을 거예요.

김윤임: 혜린아, 그런 거 아니야.

혜린: 선생님, 이제 어느 학원으로 가세요?

김윤임: 선생님 이제 학원 안 가려고.

김윤임에게 대치동은 과거와 완벽하게 구분되는 공간이었지만  
다시 과거를 불러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스  
스로 인지하고 해소하는 포합의 장소성을 획득한다.

성공만을 추구하고 냉혹한 경쟁으로 보여지는 대치동은 각 개인  
이 결핍을 갖고 찾아온 공간이었다. 그리고 스캔들로 그들의 성공  
을 뒤엎어 몰락의 공간으로 재현하지만 결국 드라마와 영화가 추구  
하는 메시지를 위하여 주인공의 결핍을 해소하는 포합의 공간으로  
대치동의 의미를 재설정한다.

## 5. 결론

공간은 시대나 문화 흐름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공간의 의미 부여를 하는 데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막강하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문화콘텐츠에서 재현되는 대치동의 의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드라마 〈일타 스캔들〉, 〈졸업〉, 영화 〈대치동 스캔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아파두라이의 공간 개념을 차용하여 지역성, 정체성, 장소성을 설정하고 대치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일타 스캔들〉, 〈졸업〉, 〈대치동 스캔들〉에서 재현하는 대치동은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주인공들의 스캔들이 전개되면서 기획 의도와 관련한 대치동의 의미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우선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성에서 형성하는 대치동의 의미는 성공이다. 최치열의 부의 축적이나 서혜진을 영입하려는 경쟁 학원들의 노력, 김윤임과의 경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료 강사 등을 통해 이러한 의미가 재현된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초반 대치동으로 설정한 공간에 대해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대치동의 일반적 인식을 강화한다. 그러나 스타 강사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듯한 주인공들의 실상을 통해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치동은 지역성과 큰 차이를 갖는다. 주인공들에게 있어 대치동은 원하던 꿈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대치동의 지역성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실제 개인의 경험 차원에서 구축된 대치동의 의미는 결핍의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주인공들에게 절망과 실패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공간의 의미는 고정되지는 않는다. 주인공들은 주변 인물들과 연관되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대치동이라는 공간이 기능하며 그 의미를 변화시킨다. 즉, 대치동이라는 공간이 결핍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포합의 장소성으로 재현되

면서 드라마와 영화가 전달하려는 기획 의도를 강화한다. 대치동이라는 공간은 지역성, 정체성, 장소성의 의미 체계가 변화하면서 각 작품이 전달하려는 기획 의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대치동이라는 특정 지역이 드라마와 영화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장면만을 예시로 들어 이야기 진행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분명하기에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기초 자료

드라마 〈일타 스캔들〉, 2023년 1월 14일-2023년 3월 5일 방송.

드라마 〈졸업〉, 2024년 5월 11일-2024년 6월 30일 방송.

영화 〈대치동 스캔들〉, 2024년 6월 19일 개봉.

### □ 참고 논문

김남일·백선기, 「언론매체의 ‘강남권역’ 신화형성과 이데올로기」, 『언론과 사회』, 16권 2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8, 2-36쪽.

김희경, 「담론화된 도시공간과 정주자의 일상적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배균·장진범,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287-306쪽.

박형진·김문덕, 「실존적 개념의 장소성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 56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6, 92-101쪽.

백일순 외, 「도시 구성체로서의 학군」, 『공간과 사회』, 제33권 제2호(통권 84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23, 132-183쪽.

서동진·김주연, 「장소정체성을 위한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 비교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3호 통권 80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2, 364-373쪽.

장근수 외, 「아운 아파두라이의 scape 개념을 통한 문화의 세계화와 현대건축의 상관관계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3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2003, 465-468쪽.

정수열, 「강남의 경계 긋기」,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2018, 173-191쪽.

정현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회, 2013, 107-141쪽.

지주형,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307-330쪽.

최연희, 「강남 러시, 혹은 강남 닳기의 몇 가지 풍경」, 『중등우리교육』, 166, 우리교육, 2003, 78-79쪽.

최은영, 「강남의 형성과 사회·경제 장벽의 강화」, 『대한지리학회지 학술대회논문집』, 대한지리학회, 2005, 63-64쪽.

### □ 기타 자료

〈일타 스캔들〉 공식 홈페이지, <https://tvn.cjenm.com/ko/crashcourseinromance/>

〈졸업〉 공식 홈페이지, <https://tvn.cjenm.com/ko/The-Midnight-Romance/>

## ABSTRACT

### The semantic system of Daechi-dong in cultural contents

- Centering on the 〈Ilta Scandal〉, 〈Graduation〉,  
and 〈Daechi-dong Scandal〉

Mi Hee, Park<sup>14)</sup>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semantic system of Daechi-dong as represented in cultural contents. To this end, the dramas 〈Ilta Scandal〉, 〈Graduation〉, and the movie 〈Daechi-dong Scandal〉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pace by borrowing Apadurai's concept of space.

In addition, the general perception of Daechi-dong is reinforced by the specific description of the space set as Daechi-dong in the beginning of the movie or drama. However, Daechi-dong, which reveals personal identity at the level of the instructor's personal experience, is very different from regionality. For the protagonists, the locality of Daechi-dong does not have much significance as they were forced to give up their dreams. The meaning of Daechi-dong, built on the level of personal experience, is a space of deficiency. However,

---

14) Dankook University, Lecturer

even if it is a space of despair and failure for the protagonists, this meaning is not fixed. It changes into a space of inclusion that resolves the deficiency, heals the wound, and conveys the meaning of the drama and movie. This change is closely connected to the theme of the actual cultural content.

Keywords : Daechi-dong, semantic system, 〈Ilta Scandal〉,  
〈Graduation〉, 〈Daechi-dong Scandal〉

## 박 미 희

전 자 우 편 : beaorigin@gmail.com

논문 접수일 : 12월 10일

심사 완료일 : 12월 30일

게재 확정일 :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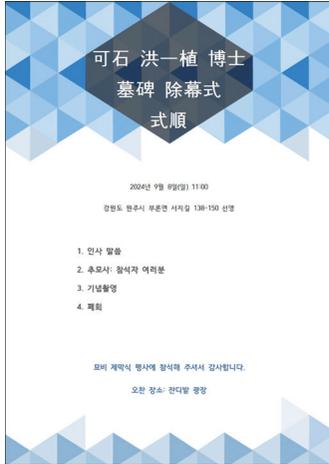


## (재)문화영토연구원 소식

### ■ 고(故) 가석 홍일식 박사 묘비 제막식 개최

(재)문화영토연구원(이사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은 2024년 9월 8일(일) 원주시 부론면 선영에서 고(故) 가석 홍일식 박사 묘비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9월 11일 서거 1주기를 앞두고 거행된 묘비 제막식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지인, 제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고인을 기렸다.

장남이자 (재)문화영토연구원 이사장인 홍성걸 교수는 인사말씀에서 고인의 업적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첫째,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바른 교육 큰 사람 만들기」를 펼쳐 고려대학교의 교육 혁신에 헌신한 점을 들었다. 두 번째, 민족문화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소를 국학 연구의 중심 연구소로 성장시킨 것과 세 번째로 앞선 안목을 바탕으로 『중한대사전』을 편찬하여 한중수교의 숨은 개척자가 되었다는 것을 꼽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어문화연수부를 설립하여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에 새로운 장을 연 것, 다섯 번째로 퇴임 후 사재를 출연하여 「(재)문화영토연구원」을 설립하여 문화영토론을 기반으로 한 우리 문화적 역량을 세계화와 관련된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업적으로 소개하였다.



## ■ <(재)문화영토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성료

(재)문화영토연구원(이사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은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2024년 10월 12일(토)에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재)문화영토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문화영토론의 관점에서 본 한류의 도전과 위기 및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 수

준 높은 발표와 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홍성걸 이사장은 인사말씀에서 본 학술회의는 설립자인 고 가석 홍일식 박사의 유지를 이어 문화영토론을 심화 및 확산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설립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류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류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본 국제학술회의의 학문적 의의라고 말했다.

발표는 오전과 오후 세션을 나누어 이루어졌고, 오전 세션에서는 6명의 국내 학자들이 2개의 패널로 나누어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오후 세션에서는 6명의 해외 초청 학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본 학술회의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에도 150여 명의 일반 참가자들이 문화영토론과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발표자와 발표 제목, 그리고 지정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오전 세션 (켄싱턴호텔 2F 첼시홀/그리니치홀)

〈제1패널〉 사회 : 김 정 우 교수(고려대)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김 연 재 (공주대)	한류의 세계화에서 본 문화도시의 공간 지속가능한 문화생태주의 - 공간적 전환에 착안하여	전 병 준 (인천대)
남 상 석 (태권도연구원)	원조 한류 태권도, 문화전파의 한계	김 정 우 (고려대)
박 치 완 (한국외국어대)	홍일식의 효(孝) 담론과 ‘우리-공동체’의 보편적 생활 실천 윤리	조 성 환 (원광대)

〈제2패널〉 사회 : 홍 성 구 교수(경북대)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유 현 정 (성균관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정 원 기 (한국교원대)
이 루 다 (글로벌K문화 연구소소장)	‘극장한국학’과 ‘한류영토’ 개념화 - 대(對) 아세안 한국학 전략을 위한 베트남 사례	박 미 희 (단국대)
이 용 현 (고려대)	한류, 문화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 한류는 문화외교의 표상이 될 수 있는가?	조 진 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오후 세션 (켄싱턴호텔 15F 그랜드스테이션)

〈초청 발표〉 사회 : 이 인 혜 교수(전남대)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Um, Hae Kyung (University of Liverpool)	K-pop Reterritorialization: Questions of Culture and Territory for the Transnation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lyu (K-pop의 재영토화: 한류의 초국가적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문화와 영토의 문제)	최 영 희 (서울과기대)
Nicola Fraschini (University of Melbourne)	Korean Wave and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 Focusing on Korean Language Learners' Motivation (한류와 해외 한국어 교육- 한국어 학습자 동기를 중심으로)	손 혜 진 (서정대)
Austin Givens (KAIST)	Moving beyond trends in K-Food content: how stories, authenticity, and regionality create lasting and meaningful cultural impact (K-Food 콘텐츠의 트렌드를 넘어서: 스토리, 진정성, 지역성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문화적 영향을 만드는 방법)	권 진 주 (고려대)

Coffee Break		
ZHUYIBO (Peking University)	以韩国影视剧为中心看韩流文化 在华传播的影响与挑战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중국에서의 한류 영향과 도전)	이 유 정 (고려대)
Julina Tajul Ariffin (Universiti Teknologi MARA)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Through Media Strategy (미디어 전략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	김 미 라 (한성대)
YAMAMOTO JOHO (Ritsumeikan University)	An Examination of NewJeans Hanni's Cover of 'Aoi Sangoshō' : A Perspective on K-Culture's Sustainability (뉴진스 하니의 '푸른산호초'에 대한 고찰 - 한류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서 영 호 (경상국립대)



※ 본 학술회의의 발표 내용은 (재)문화영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www.rict.or.kr](http://www.rict.or.kr) → 자료실 → 학술지/간행물)

# (재)문화영토연구원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이라 한다.

###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연구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 국민의 문화소양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문화영토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②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 ③ 효 문화의 확대 및 재생산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④ 민족문화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 ⑤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제5조 (이익공여 무상의 원칙)**

1.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2.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3.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 **제 2 장 임 원**

####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명
- ② 이사 5명
- ③ 감사 1명

2.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1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

- 를 대행한다.
2. 이사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④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⑤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 제 3 장 이 사 회

#### 제15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원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⑥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⑦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⑧ 제5조 제3항의 규정 외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 **제1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1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 **제18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0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 제 4 장 재산 및 회계

#### 제21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22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제23조 (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25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26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제 5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변경사유서 1부
- ②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조선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규정”이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및 투고 논문 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 2 장 조직 및 권한

###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2인, 편집위원 8인 이상, 편집간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4조 (위촉)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 중 호선에 의해,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관련 분야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국내외 학술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추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① 본 학술지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높고 학술 활동이 활발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국내외 6개 이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대학 소속 교원이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3. 편집간사는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문연 이사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를 도와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3 장 업무와 활동**

#### **제7조 (업무)**

-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기획, 심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 3.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결과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우수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 (성립)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석한 경우에는 소집된 편집위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편집위원 중 제반 안전에 대한 의사를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4. 편집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의결)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전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4 장 투고 논문의 심사

### 제11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 제12조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

1.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2.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3조 (심사 절차)

1. 심사는 1차, 2차, 3차 심사로 진행한다.
2. 1차 심사는 편집간사가 투고 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고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특정 기관(학교)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1/3을 초과하게 될 경우, 논문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3.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들 중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9.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0. 3차 심사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심사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단, 3차 심사는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90일) 투고자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 제14조 (심사기준)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심사소견), 종합 평가(게재여부), 심사 총평(심사내용)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항목별 평가는 다음 10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① 논문의 주제는 창의적인가?
  - ② 관련 이론의 검토는 충분한가?
  - ③ 연구 방법은 적절한가?
  - ④ 논문의 구성은 논리적인가?
  - ⑤ 논문 내용의 일관성이 있는가?
  - ⑥ 서술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가?
  - ⑦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⑧ 참고문헌의 인용은 정확한가?
  - ⑨ 논문 초록은 적절한가?
  - ⑩ 초록 및 주제어의 외국어 표기는 적절한가?
3. 종합 평가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4. 심사 총평은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1.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2.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3점, 수정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 게재불가-0점을 부여하고, 상위득점자 순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기타 자세한 심사 절차와 방법은 제14조의 심사 절차와 제15조의 심사 기준을 따른다.

### **제16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그 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치를 취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4권 2호의 간행(2023.12.31)부터 적용한다.

#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의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제2조 투고범위

1. 『문화영토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① 국가의 소프트파워인 민족문화의 세계화 현상
  - ② 우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
  - ③ 국내외 한류(K-Culture)의 현황과 확산 방안
  - ④ '문화영토론'에 대한 학술적 분석
  - ⑤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관련성을 인정한 주제
2. 투고된 연구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3조 투고자격

『문화영토연구』의 투고는 '문화영토론'에 관심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 제4조 연속투고 금지

1. 연속투고란 직전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가 다음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연속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학회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연속투고는 금지한다.
2. 단, 복수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 다음 호에 단독으로 연속투고 하는 경우, 반대로 단독투고 이후에 복수의 저자들과 함께 투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투고원고의 작성

1.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번역문 수록여부를 결정한다.
2. 모든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7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문의 초록은 원고지 3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는 5개 내외를 제시한다.
3.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6조 투고원고의 체제

1.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의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  
[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위)-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영문 초록-영문주제어]
2. 모든 투고논문은 원고 말미에 필자명, 메일주소를 명기한다.
3.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4. 제목의 번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여한다.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

### 제7조 인용

1. 인용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혀 기술한다. 반면, 인용 내용의 분량이 많은 경우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좌로부터 5글자를 들여 써야 한다.
2. 인용하는 내용이 외국어로 기술된 경우 번역하여 실는다. 단, 원어를 병기할 경우 각주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간에 내용을 생략할 경우 (……) 말줄임표로 생략을 표기한다.

### 제8조 각주의 표기

1. 단행본

① 국문도서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10쪽.

② 외국도서

필자명, *저서명(이탤릭체 표기)*,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Martinus Nijhoff, 1973, p. 27.

※ 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저자가 2인인 경우 저자 이름을 모두 표기하며,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저자 1인 이름을 표기한 후 외(영문의 경우: et al.)로 표기한다.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

① 국문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이제현, 「문화콘텐츠의 창작」,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가현출판, 2020, 16쪽.

② 외국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이탤릭체 표기)*, 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p. 27.

3. 한글 번역본

필자명, 번역자명 옮김,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베르너 쾰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36쪽.

4. 학위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소속 대학 및 학과,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

예)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10쪽.

## 5. 정기간행물 또는 저널 속의 논문

### ① 국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제○권(제○호), 학회명, 출판년도, ○쪽.

예) 박선옥, 「스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71쪽.

### ② 영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이탤릭체 표기), Vol.○, No.○, 출판년도, p. ○.

예)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p. 23.

## 6. 기타 자료

### ① 일간신문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 00면.

### ② 온라인 기사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 ③ 온라인 자료

[제목], url, (검색일자: 0000년00월00일)

예)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 7. 중복된 참고문헌 인용

① 국문인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책, 위의 글(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 (위의 글), 10쪽.

②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저자명 명기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김숙자, 앞의 책 (앞의 글), 17쪽.

베르너 줌바르트, 앞의 책, 23쪽.

- ③ 같은 저자의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명까지 작성하며, 논문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17쪽.

조광조, 『문화와 소비』, 20쪽.

- ④ 영문(외국어)의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표기한다.

예) *Ibid.*, p. 25.

- ⑤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 표기한다.

예) Longaker, M. G., *op. cit.*, p. 16.

### 제9조 참고문헌 표기

1. 참고문헌은 단행본, 참고논문, 기타자료로 구분하고, 단행본을 참고문헌의 최상단에 표기한다. 배열은 가나다 순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행본

② 참고논문

③ 기타자료

인터넷, 기사 등의 자료는 '기타자료'로 표기하며 참고문헌 최하단에 표기한다.

2. 참고문헌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위 1과 같이 세분하는 대신, 국내문헌(가나다 순), 외국문헌(알파벳순)만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①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②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③ 외국저자의 인명이 다르게 표기된 번역서들을 복수로 인용하는 경우

외국저자의 인명은 통일해서 사용한다. 각주와 참고문헌에도 하나의 이름만을 사용한다. 단, 본문에서 맨 처음 인용 시 각주를 활용해 인명을 통일했음을 밝힌다.

각주 예) 본 연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Adam Smith를 ‘애덤 스미스’로 번역하고자 한다. 동일인을 ‘아담 스미스’로 번역 표기한 저술에 대해서도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서 ‘애덤 스미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 ④ 복수의 저자가 쓴 단행본 안의 논문이나 글을 인용할 경우 대표저자 한 사람만 표기한다.

예) 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대중문화와 소비』, 김시습 외 지음, 신예문화, 2020.

#### 4.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 ① 단행본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김시습·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신예문화, 2020.

조광조, 『문화와 소비』, 문화시티, 2019.

베르너 좀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 동일 저자의 단행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단행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 ② 참고논문

박선옥, 「스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63-192쪽.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 동일 저자의 논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논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③ 기타자료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  
자: 0000년 00월 00일)

※ 동일 저자의 기타자료가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게시일 순서로 가장  
빠른 자료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 제10조 부호의 사용

1. 각종 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책: (자판 입력)접낫표(『 』)
- ② 작품: (자판 입력)낫표(「 」)
- ③ 전문용어: (자판 입력)홑꺼쇠표(< >)

2.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 저자의 표시

-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 2.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  
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 제12조 원고의 투고

- 1. 투고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일자에 따라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논문은 반드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한글’ 프로그  
램 권장)
- 3. 투고논문의 투고는 당 연구원 전용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https://kyobo197.medone.co.kr/>
- 4. 논문 투고시 반드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 5. 저자의 소속 및 직위 정보는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하며, 학교와 학년 혹은 최종 소속과 직위, 재학년도 등을 표기해야 한다.

6. 저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해야 하며, 그에 이어 교신저자 및 기타 저자들을 수록해야 한다.

### **제13조 투고료 및 원고료**

1. 투고를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 심사료는 면제된다.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 및 추가 인쇄료는 면제된다.
3. 게재된 논문에 한해 한시적으로 ₩500,000(세전)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4. 원고료 지급 시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14조 게재 논문 저작권**

『문화영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문연이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연은 이를 승인한다.

### **제15조 기타사항**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2호의 간행(2021. 12. 31)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4권 2호의 간행(2023. 12. 31)부터 적용한다.

##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이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간행물 성격)

『문화영토연구』는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및 세계와 소통하는 K-Culture 전문 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논문 및 기타 학술성과물을 실는다.

### 제4조 (간행 형태 및 시기)

1. 『문화영토연구』는 문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화영토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간행한다.

### 제5조 (심사 대상 및 방법)

1. 투고된 원고 중에서 문연의 일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심사방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에 명시되어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 제6조 (연구 윤리)

『문화영토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는 “문화영토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 (간행물 열람 및 배포)**

『문화영토연구』는 전자책 형태로 간행되며 민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록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문연 및 관련 연구 기관 보관용으로 소량의 학술지를 인쇄 배포한다. 논문 게재자에게는 논문 별쇄본과 학술지를 배포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문연의 연구윤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또한 문제 발생 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연 발행학술지 『문화영토연구』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진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

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중복투고'는 투고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심사 종료 전에 타 학회(혹은 기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5조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범위)

다음의 행위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1.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6조 (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기구이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관련 분야 전공자를 추천받아 문연 이사장이 위임하되,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한다.
4.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 (심의요청)

1. 개인이나 대학부서, 학술단체 등은 『문화영토연구』의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제반 연구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의에 절차에 따른 심의가 요청되면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등)

1.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절차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소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소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피제소자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시정요구, 중재,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1. 위원회의 조사과정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2.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조사과정은 물론 조사과정 종결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제소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3 장 연구윤리 관련 제재 조치

###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논문은 게재(투고) 취소 및 삭제한다.
2.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 ① 표절의 경우, 영구히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② 위조 및 변조의 경우,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③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및 중복게재의 경우,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면 문연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4.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13조 (허위제보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고의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허위제보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14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조사 방해 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 4 장 세부 시행지침**

#### **제15조 (연구윤리 규정 게시)**

문연 홈페이지에 “『문화영토연구』연구윤리규정”을 게시하여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윤리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 **제16조 (연구윤리 자기 점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온라인 투고 시 사전에 투고논문이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연구윤리 및 저작권에 관한 자기점검[체크리스트]”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 **제17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자는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권 2호 논문 심사 경위

투고 마감일	2024년 12월 20일
총투고 논문 수	8편
심사위원 수	편당 3인 이상
심사 마감일	2024년 12월 28일
수정 논문 접수	2024년 12월 30일
총 게재 논문 수	3편
논문 게재율	37%

## 임원 명단

이사장	홍성걸
이 사	손대오, 박종렬, 김정우, 김윤선
감 사	이대명
편집위원장	홍성걸(국민대) · 김정우(고려대)
편집위원	김윤선(고려대), 윤애경(창원대), 김찬기(한경대), 최영희(서울과기대), 장은진(경성대), 장만호(경상대), 홍성구(경북대), 조은하(강원대), 오재혁(건국대), 김공숙(안동대)



SJL파트너스 후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배려가  
**文化領土研究院**의 힘이요 채찍입니다.

---

(財)**文化領土研究院** 후원계좌  
하나은행 : 187-910009-37605